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표지: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리아호나의 자세한 그림, 뒤: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신세계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백성
 들: 리아호나, 로웰 피트,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사진 촬영:
 론 리드

친구들 표지
 그림: 캐리 이 스미스, 리아호나를 들고 사랑하는 니파이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바이런 알 메릴
- 17 말일성도의 소리: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나와 함께 행하라"
- 30 조셉 에프 스미스: 화평의 왕을 따름 질 말베이 데르 및 헤이디 에스 스윈튼
- 44 가정에서 대중 매체의 영향을 통제함

청소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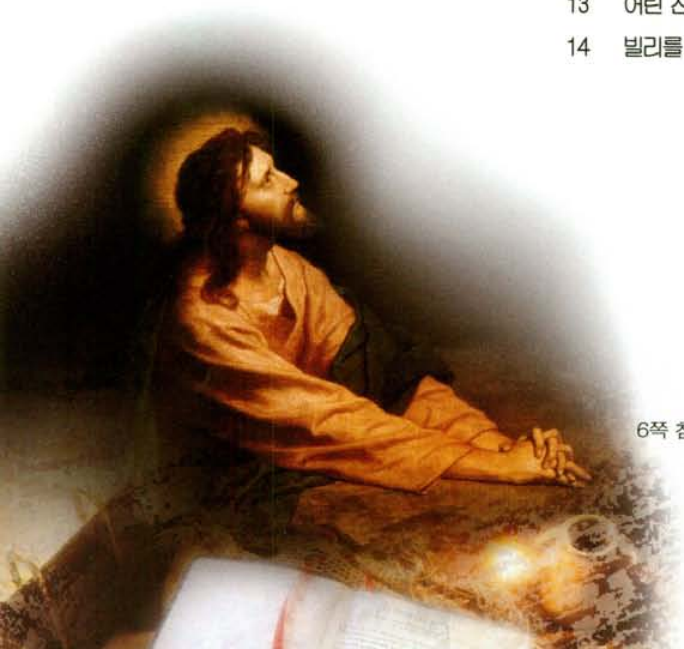
- 14 모든 것이 잘못되고
- 22 무대 뒤에서 피터 비가드너
- 24 물론 메시지: 누가 움직인 겁니까?
- 26 날개 앤 엘빙턴 린치
- 43 "호세, 안녕하세요" 투드 던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 4 함께 나누는 시간: 올바른 길로 앤 재미슨
- 6 물문경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비비안 폴슨
- 8 물문경 게임 로나 리드와 에이치 제이 노엘
- 10 이야기: 케첩의 비유 대간 데커
- 13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침례 책 엘리스 블랙
- 14 빌리를 위한 금식 글로리아 포프



44쪽 참조



6쪽 참조



2쪽 참조



26쪽 참조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제2호
20982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치 옥스, 엘 러셀 블라드, 조셀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머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켈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파 파장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홀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모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미빈 케이 거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메스 테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케이 카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스 벤 캠펠

선일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퍼터스

생산: 레지널드 케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비, 제이슨 엠 엠

포드, 디나 엘 쇼렌슨

디자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터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헵슨

통 권: 제 407호, 제 37권, 제 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0년 2월 1일 (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문동 7번지

인재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연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파(☎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자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말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기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February 2000 No.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나는 리아호나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주 전에 내 친구의 열 두 살 된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밀리는 태어날 때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밀리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너무도 슬펐고 아무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때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된다고 배운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지식은 나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내가 느끼는 편안함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리아호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작위로 기사 하나를 골랐고 그것은 대판장단 메시지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판장님의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리아호나, 1998년 8월호 2~6쪽 참조) 몬슨 부대판장님은 열 살 난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

족을 위로할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일성도라는 것과 리아호나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브리엘루 에스페차,
아르헨티나 구아이말렌 스테이크,
도레고 와드

편집자 주: 리아호나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기사, 제언 등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84150-3223, USA;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우리는 여러분의 충고와 제언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리아호나에 관련된 우리의 임무와 무관한 편지나 전자 우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회원과 접촉할 수 있게 도와 달라거나 공과나 말씀을 위한 특별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청들을 받아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유익하고 영적으로 고양시키는 우수한 잡지를 생산하는 우리의 주요 책임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리아호나에 관련된 주제들만 가지고 우리와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애독자 편지란, 질의 응답 편에 실린 질문들에 대한 응답, 신앙을 키울 수 있었던 경험에 관한 말씀, 복음 원리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기사 등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나 자원들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잘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2000년의 새벽에 서있는 우리는 17세라는 젊은 나이에 받은 말씀에 관한 요셉 스미스의 간증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한 밤중에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던 요셉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모로나이]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교회 회원들의 깊은 신앙심과 충실함에 감사드립니다. 모국이 어디이든 우리는 모두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친구들로 구성된 가장 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33)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위대한 범세계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이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깊은 신앙심과 충실함에 감사드립니다. 모국이 어디이든 우리는 모두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친구들로 구성된 가장 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사진 촬영: 도 열 시열;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의 초상

성도들의 우정

몇 년 전에 일본 천황이 미국을 순방했을 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를 위한 오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한 넓은 경험을 갖고 있고, 정계, 사업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한때 일본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다른 세 쌍의 부부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신사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교회 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그곳에 오는 많은 미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 대부분이 심한 문화적 충격과 외로움과 향수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오는 물론 가족들을 보면 늘 금세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그 자녀들은 자신의 종교 단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즉시 융화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며 도와야 합니다. 말일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의 위대한 대업에 함께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 받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며 도와야 합니다. 말일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의 위대한 대업에 함께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마땅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형제애와 자매애의 정신이 약화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일면입니다.

우리의 신학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에의 선행을 믿습니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습니다.”(신앙개조 제13조)

이 신앙에 관한 개조는 우리 신학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거듭 거듭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천박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하게 처리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행위의 윤리성을 모두 포함하는 이 훌륭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개인 행실에 대해 변명으로 합리화하려는 태도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 사이에는 회색의 넓은 영역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는 모로나이가 인용한 그의 아버지 물몬이 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추천합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모로나이사서 7:16)

우리 생활에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것들을 읽는 습관을 세우시다. 그분은 우리 교리와 신앙의 중추적인 인물이십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의심 없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전에 이 백성들에게 훌륭한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들아,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

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 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 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리와 성약 6:33~34, 36)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사랑과 화평과 조화의 영을 배양하며,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들을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며, 우리 이웃과 타인들에게 기독교인의 사랑과 감사의 영을 가지고 대하고, 어디서든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돕고, 십일조와 헌금을 정직하게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아주 명확한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성약들을 지키는 자들의 편에서 계십니다. 참으로 그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는 지구상에서 친구들로 구성된 가장 큰 공동체로 여겨지는 집단에 속해 있다.
2.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우정, 즉 형제애와 자매애의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일면이기 때문이다.
3.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이 신앙개조 제13조에 실려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숙지할 필요가 있다.
4.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바이런 알 메릴

선견을 갖고 있었던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말일의 문제점들과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권고하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그들의 글을 동시대의 사람들이 읽게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저술한다. 신약 전서와 같은 경전조차도 주로 초대 기독교 시대의 교회 회원들과 구도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주로 그들과는 아주 동떨어진 시대와 문화권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와 증거로서 말씀들을 준비했다.

몰몬경의 마지막 저자인 모로니이는 몰몬경이 출현하게 될 때의 지상의 상태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몰몬서 8:14~41 참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몰몬서 8:35) 하나님의 예지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시대 상황을 미리 보았던 몰몬경의 주요 저자들, 즉 니파이, 야곱, 몰몬, 모로니이는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와 논점—속죄, 교만의 위험, 예언자의 중요성, 가족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약을 성취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주님은 몰몬경의 저자들에게 우리 시대를 보이시고 그들에게 우리와 관련된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영감을 주시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속죄의 중요성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 세상에서, 몰몬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모사이아서 3:17)

몰몬경은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과 그의 속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들 들면, 엠울레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속죄의 범이 아니면 멸망을 면치 못하리라.”(엘마서 34:9) 야곱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속죄가 “이 음흉한 괴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했으며, 진정 괴물은 지옥이요, 죽음이며, 내가 이를 육신의 죽음이며 영의 사망이라 부르는도다.”(니파이이서 9:10) 리하이이는 이 구속이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니파이이서 2:8) 우리 각자에게 온다고 말했다.

엠울레크는 속죄가 “사람이나 짐승의 희생이 아니요, 끝이 없고 영원한 희생이어야 하리라”(엘마서 34:10)라고 가르쳤다. 또한 희생하는 사람들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엘마서 34:14)라고 가르쳤다. 엠울레크는 또한 구세주의 속죄가 일어나기 1세기 전에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어느 시

대,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너희가 회개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즉시 너희에게 내려지리라.”(엘마서 34:31)

“끝이 없고 영원한 회생”이라는 구절은 구세주의 속죄의 깊이와 넓이, 즉 그 분이 당하신 고통의 양뿐 아니라 질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엘마는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얽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힘으로 그들의 범법을 구제하실”(엘마서 7:11~13)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일”(엘마서 7:12) 아신다.

속죄가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니파이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며”(니파이이서 25:26)라고 기록했는지, 그리고 왜 니파이의 부친인 리하이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니파이이서 2:8)라고 말했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공의에 묶여 있음을

아노니 그 공의는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게 하신 것이다.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손길이 임할 수 없는 것이다. 자비의 계획을 펼치시려 주께서 스스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엘마서 42:14~15)

교만의 위험

세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여론 조사에 대한 응답에 경제, 질병, 범죄, 정치의 부패, 또는 환경 문제 등이 자주 포함된다. 그러나 몰몬경에 따르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만으로 가장 잘 묘사되는 태도이다. 몰몬경에서 교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죄로서 비난받고 있다.

예들 들면, 야곱은 “저희의 지혜와, 학식과, 재물로 인하여 교만(한 자들이)… 깊이 겸손하여지지 않을진대, 주께서는 결코 저들에게 열여 주지 아니하(실 것)”(니파이이서 9:42)이라고 지적했다. 시현을 통해 우리 시대를 본 후 니파이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니파이이서 26:20)겠다고 말했고, 교만으로 인해 비밀 결사와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금전을 받고 행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니파이이서 26:22, 29~30 참조)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마음에 교만이 부풀어 오른 너희 명철하고 유식하며 부한 자와 모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자의 음행을 행한 자와 주의 바른 길을 왜곡시킨 모두에게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임이라.”(니파이이서 28:15)

교만에 관한 엘마의 다음 말씀은 특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적절하게 보인다. “보라 너희는 교만을 던져 버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우리는 레이맨인인 사무엘 시대의 니파이들로
 부터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경고의 음성
 을 듣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배울 수 있다.

않은 것이라. 보라 천국이 가까왔고 교만을 던져 버리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속히 준비해야 하리라”(엘
 마서 5:28)

물문경의 다른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모로나이도 “화려한 옷을
 입는 것”(물몬서 8:36)은 대개 교만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엘
 마는 조렘인들이 “저들의 값진 의복과, 고리와, 팔찌와, 온갖 금
 패물과 온 몸에 장식한 값진 보화들”(엘마서 31:28)에 마음을 두
 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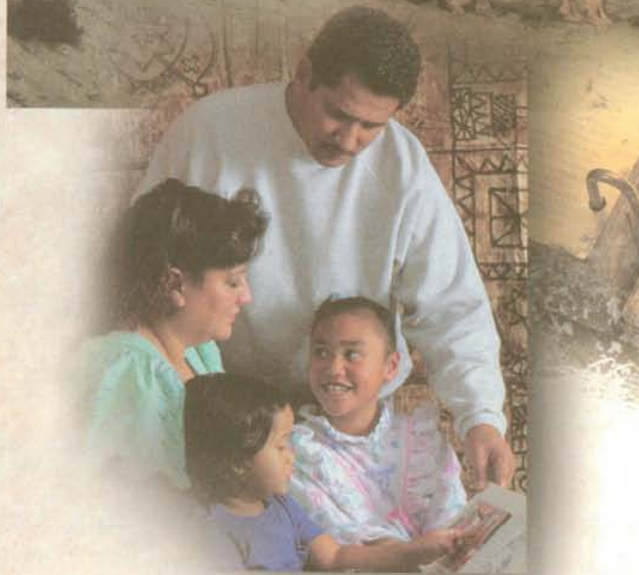
니파이인들이 교만으로 가득 찼을 때,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
 엘은 그들에게 맞서서 “너희의 재물로 인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
 으며 너희 재물이 또한 저주를 받으리라”(힐라맨서 13:21)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너희는 주 너희 하
 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 것으로 하여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재물만을 생각하여 이를 주신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아니한지라. 너희 마음이 주께 가까와지지 아니하
 고 커다란 교만으로 부풀어 올라 뽐내며 득의 만만하며, 시기하
 고 다투어 원망하며 핍박하며 살인하며 온갖 간악한 것을 행하는
 도다.”(힐라맨서 13:22)

물몬은 이와 비슷한 걱정을 표하면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저희 주 하나님을 잊으며… 이는 저들이 안이한 때문이요, 크게
 번영하는 때문이라”(힐라맨서 12:2)라고 큰 축복을 받을 때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난했다. 물몬은 교만의 원인은 사람들이
 “저희를 만드신 주 저희 하나님이 저희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또는 “주가 저희를 인도하심을 원치 아
 니하”(힐라맨서 12:6)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몬은 모로나이에

게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의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하리로다”
 (모로나이서 8:27)라고 탄식했다. 이 함축적인 경고는 우리에게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간청하고 있다.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따름

물문경은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따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리하이와 이스마엘의 가족들은 예루
 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구제되었다.(니파이이서 1:4 참조) 이와



물문경은 우리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리하이 가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은 "금은 보화를 모두 남겨 두고 다만 가족을 이끌고 양식과 천막만을 가지고" 광야로 떠났을 때 분명히 나타난다.

유사하게, 니파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의 말씀을 믿는 자들" (니파이이서 5:6)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모사이어 일세와 장로인 엘마 역시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우나이서 1:12~14; 모사이어서 24장 참조) 후대의 니파이인은 대장 모로나이의 예언적인 지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적으로부터 구출되었고(엘마서 46~62장 참조)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니파이삼서 3:19)로 불린 대판사 레이코니우스와 기드기드

도나이의 지도력을 따름으로써 철저한 멸망에서 구제되었다. 야렛인들 사이에서도, 왕이 예언자들을 보호했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었[다]"(이더서 7:25 참조) 반대로, 후대의 한 왕이 예언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고]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였[다.]"(이더서 11:13, 22) 그 결과 "주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치시며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을 운전하시로 잡[게 되었다]"(이더서 15:19) 그리하여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이더서 2:10~11)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물문경은 돌아가신 예언자들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살아 계신 예언자는 거역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노아와 그의 제사들은 그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동 시대의 아비아다이의 말씀은 거절했다.(모사이어서 11~17장 참조) 암몬아이하 백성은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엘마서 9:5)해져서 엘마와 앰올레크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시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엘마서 8~16장 참조) 힐라멘의 아들 니파이는 그의 경고를 거절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저[모세]에게 주셨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며 서로 다투어 말하느냐?"(힐라멘서 8:12) 니파이는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전한 말만을 부인한 것이 아니요, 모든 조상들의 말씀과... 메시아의 강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까지 부인

하였으니”(힐라맨서 8:13)라고 말했다.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돌아가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백성들이 “예언자와 성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은 니파이삼서 8장에 기록된 큰 멸망을 내리신 것이다.(니파이삼서 9:5, 7~9, 11~12) 주께서는 “너희 중에서 뽑아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 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복되리이다.”(니파이삼서 12:1)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행복이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온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가족의 역할

우리 시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한 것이다. 주님께서 한 가족을 대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몰몬경은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니파이는 첫 마디에서부터 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친 그의 “훌륭하신 부모님”(니파이일서 1:1)에 대해 공손하게 설명하고 있다. 리하이가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은 “금은 보화를 모두 남겨 두고 다만 가족을 이끌고 양식과 천막만을 가지고”(니파이일서 2:4) 광야로 떠났을 때 분명히 나타난다. 생명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에서, 그가 열매를 따먹은 후 그가 가진 첫 번째 바람은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열매를 먹이는 것이었다.(니파이일서 8:12 참조) 꿈속에서 레이맨과 레뮤엘이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니파이일서 8:4, 35~36), 리하이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저들 두 사람에게 미쳐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지도 못할 것이라 느껴,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저들을 권고하였다.”(니파이일서 8:37)

몰몬경은 우리가 가족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부러진 화살의 사건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항해를 시작할 시기에서, 니파이가 그의 아버지 리하이를 축복사로서 공경했고, 가족들을 위해 계시를 받는 그의 권리를 존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파이일서 16:18~32; 18:4~8 참조) 우리는 또한 몰몬경에서 자주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염려에 관해 읽게 된다. 예를 들면, 엘마 일세와 모사이야는 자신의 자녀들의 복지에 관해 크게 걱정했다.(모사이야서 27~28장 참조)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영감어린 축복을 주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다.(니파이일서 1~3 참조) 엘마 이세도 이와 똑같이 그 아들들에게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르치고, 접견하고, 간증을 전했다.(엘마서 26~42장; 45장 참조)

아마도 몰몬경에서 가장 훌륭한 가족 중심적 메시지는, 부모는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에 관해 말과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와 조상들의 모범은, 그들의 후손들이 약해질 때에도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힐라맨은 그의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왜 그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너희 이름을 기억할 때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 마치 선조들의 기사가 선하게 기록되며 이야기된 바와 같이, 너희의 선행도 그대로 기록되며 또한 전해지기를 바라노라.”(힐라맨서 5:6~7) 그는 그들에게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힐라맨서 5:12)라고 권고했다. 니파이와 리하이는 이 권고에 따랐으며, 그렇게 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힐라맨서 7~11장 참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부친의 가르침과, 그들 조상들의 충실함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증거한다. 마찬가지로 2,000명의 젊은 용사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웠기]”(엘마서 56:47) 때문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의 신성한 역할은 야곱 시대의 두 말씀에 의해 요약될 수

있다. 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사랑하(는)”(야곱서 3:7) 가족들의 모범을 칭찬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야곱 자신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주의 돌보심과 훈계로”(이노스서 1:1) 가르쳤을 것이다.

주님은 그의 성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심

몰몬경은 말일에 주님께서 “나의 백성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니파이삼서 20:29)하시리라고 선포하고 있다. 주님은 “요셉 지파의 잔류민들에게도 저들의 주 하나님을 또다시 알게 하[실 것이며]” “온 세상에 널리 흩어진 야곱의 지파를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니파이삼서 5:23~24)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면”(니파이서 30:2) 이 약속된 회복에 포함된다.

이 약속들은 현세적 축복과 영적 축복 모두에 적용된다. 니파이가 미래에 관한 이사야의 기록 일부를 인용한 후, 그의 형제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니파이일서 22:1 참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니파이는 주께서는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니파이일서 22:17) “의인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니파이일서 22:22)고 말하면서, 구원은 현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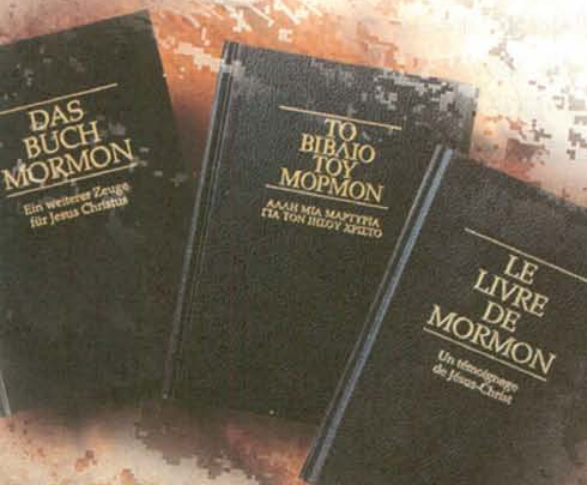
몰몬경은 “주 하나님께서는 성약과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사 만국 백성들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매”, 이 때에 그는 그의 분노를 뿜어 “교만하고 완악한 모든 백성들이 그루터기처럼 불살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니파이일서 22:11, 15) 이 신성한 기록은 “그에게로 나아 오는 자”(니파이서 26:33)들에게 주는 주님의 위안의 약속을 많이 싣고 있다. 주님께서 옛날에 “저들과 맺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입증하[신]”(엘마서 25:17) 것처럼, 우리 개인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관한 그의 말씀도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짐

우리는 몰몬경에서 현 시대에 적절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몰몬경은 경전의 중요성, 기록 보관의 가치, 회개와 순종의 필요성, 선교 사업의 방법과 목적, 기도의 중요성, 자유와 정부의 역할, 신앙, 소망, 사랑의 참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몰몬경의 절반 이상이 이 책이 담고 있는 전 시대적 배경의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시기 전 150년 동안의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본보기를 배웁니다.”(“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그들의 말씀이 장차 올 시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몰몬경의 저자들이 기록할 주제와 훈계와 경험들을 선택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니파이서 25~30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록에 대한 니파이의 영감 어린 주석을 생각해 보라. 12개 구절이 유대인에 관한 예언을 열거하고 있다.(니파이서 25:9~20 참조) 21개 구절이 니파이 자신의 백성들의 장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니파이서 25:21~26:11) 비교해 보면, 이 6개 장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몰몬경은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는 많은 주님의 약속을 싣고 있다.





몰몬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가 말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바로 우리의 시대이다.

121개 구절은 “마지막 날 곧 이방인들의 날에”(니파이이서 27:1) 세상의 상태에 관한 니파이의 시현을 얘기하고 있다. 그는 그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극히 소중한게 될 것”(니파이이서 25:8)을 안다고 언급했다.

그의 훌륭한 요약 작업으로 인해 이 책이 몰몬경이라고 이름 지어지게 된 주인공인 예언자 몰몬은 그의 백성들의 멸망을 경험했다. 그는 그의 아들 모로나이처럼 주님께서 그의 기록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실 다가올 시대를 위해 그의 기록을 분명히 남겼다.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드러내어 보이기 위해 게으른 증인처럼”(몰몬서 3:16)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록을 요약할 때, 그는 그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나 훈계를 선택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에 관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의 간증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가 말한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다. 모로나이는 우리가 이 기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의 백성들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몰몬서 9:31)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성한 기록을 완성했다.

우리가 새로운 백년과 세속의 천년을 시작할 때, 몰몬경은 현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경



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굳게 해주고, 우리를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구원해 줄 근본적인 교리와 원리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몰몬경을 신중하게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이 책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 계명 곧 몰몬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며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라]”(교리와 성약 84:57)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

주님의 새 계명의 핵심 부분인 몰몬경은,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 시대를 위해 준비된 한 권의 중요한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한 것이다. □

모든 것이 잘못되고

글쓴이의 성명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음

나는 말일성도로서는 생활하기가 힘든 학교를 다녔었다. 말일성도 학생들은 소수였고, 우리와 같은 표준을 지키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 같았다.

우리의 가족은 분열되었다. 우리는 항상 다투었다. 부모님들은 항상 서로를 비난하셨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다. 가정은 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당시에 내 인생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 본격적으로 경전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가족들은 내가 경전 읽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어머니마저도 그 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나는 물문경에서 가족 문제를 겪어야 했던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경험담을 읽는 것은 나의 문제를 다루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니파이의 부친인 리하이는 니파이의 형들인 레이맨과 레뮤엘

에게 자주 충고를 해주어야 했다. "... 완고하였기 때문[에]... 부친께 여러 가지로 불평을 토하였으며"(니파이일서 2:11)

니파이는 이렇게 계속 썼다. "이에 레이맨이 나와 부친께 화를 내었으며, 레뮤엘도 레이맨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었으니, 화가 난 레이맨과 레뮤엘이 저들의 동생인 우리들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는 종래 막대기로 내려치니라."(니파이일서 3:28)

난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나는 교회에 나갔고 상호 향상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정규적으로 기도했다. 나는 엄마가 다시 교회 활동을 시작하도록 권하기까지 했다.

니파이도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형들이 주님께 돌아서도록 격려했다. "나 니파이는 저들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들은 나의 형이라, 형들이면서 어찌하여 동생인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고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리만큼 마음이 어둡고 완악하단 말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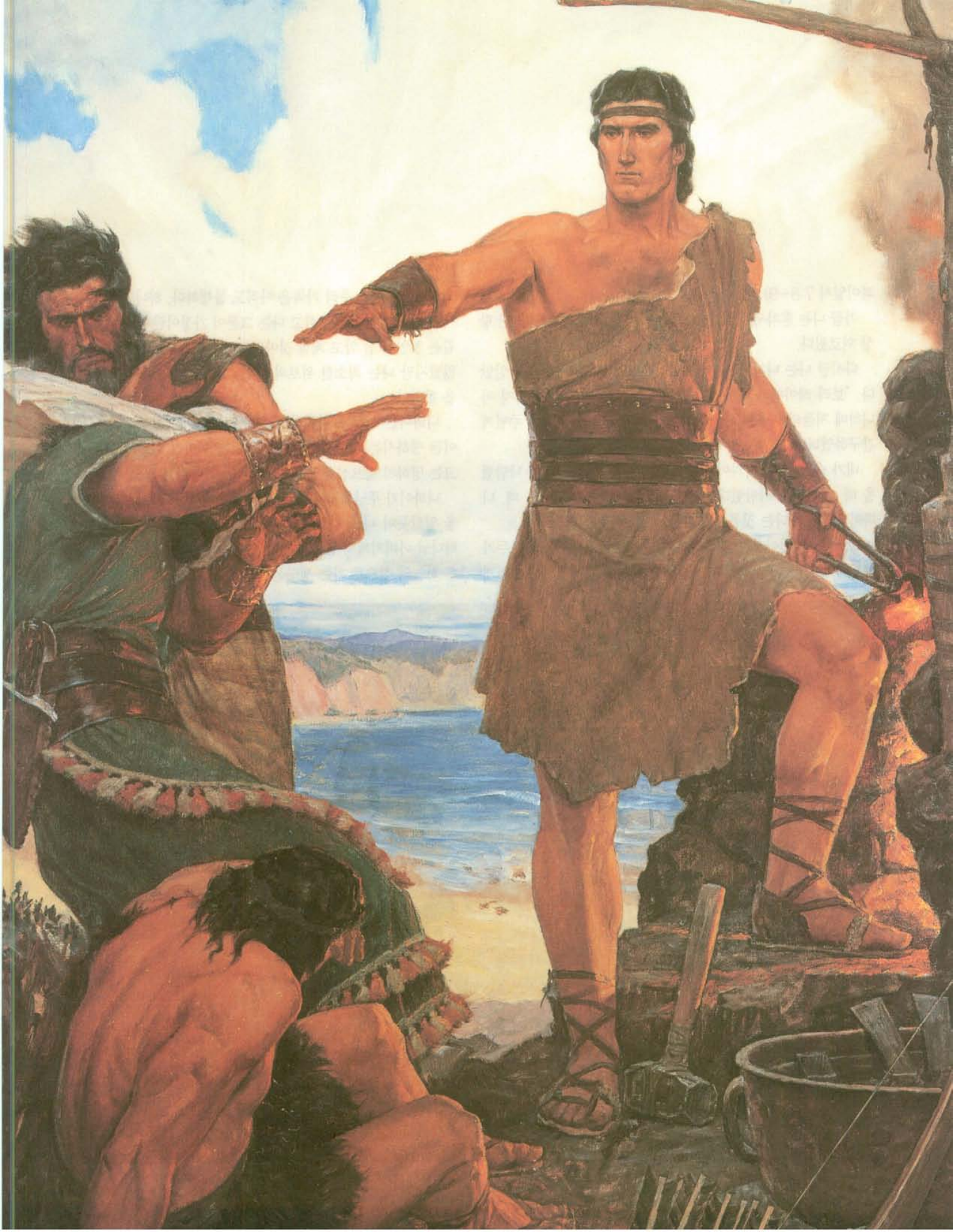
"어찌하여 아직도 주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아니 하느냐?"(니

나의 가정 생활은

조금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니파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 위안을 찾을 수 있다.



파이일서 7:8~9)

가끔 나는 혼자서 울었다. 가끔은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난 항상 외로웠다.

다시금 나는 니파이가 나와 비슷한 느낌들을 경험했음을 알았다.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매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며 저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였더니”(니파이일서 2:18)

내가 슬펐을 때, 니파이도 슬펐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낙담했을 때, 니파이도 낙담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외로웠을 때, 니파이도 외로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 모두가 그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불행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경전을 주셨고 나는 그분이 가정이란 나에게 무엇과 같은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갈등이 멈추진 않았지만 나는 최소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니파이일서 3:7)

니파이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듯이 나도 가정에서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안다. 경전은 하늘의 집으로 가는 생명선인 것이다. □



그레고리우스 프록시모 그림, '나중이러'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 400년 이상이 지난 후
 에, 예언자 모로나이는 황폐한 언덕에 나피이인
 예언자들의 기록을 문었다. (모로나이서 10:27 참조)
 이 성스러운 기록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
 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
 는지를 보여 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
 실을 세상에 확신시키기 위해 준비된 것이
 다. (몰몬경 표제지 참조) 이 들 예언

자들의 증언들은 세상이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1,400년을 기다려 왔다. 몰몬경 전체가 49개 언
 어로 번역되었고 몰몬경의 일부가 또 다른 42개 언어로
 번역된 지금, 이들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
 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전세
 계의 말일성도들에게 몰몬경이 미친 영향
 력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알 스탠리 스웨인

우리 부부는 나이지리아의 아바 선교
 부에서 봉사했다. 어느 날 아내가 지
 부의 회원들에게 오르간을 가르치고 있었
 는데 우와이포 장로와 아카가 장로가 기쁨
 에 넘친 모습의 한 남자를 우리에게 데리
 고 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너무너무 기쁩니다!”라고 외쳤다. “하나
 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이 피우스 시 오조에메나
 박사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보
 도록 권했다.

1988년 8월, 나이지리아 에누구의 아
 남브라 주립 기술 대학의 물리학과 선임
 강사인 오조에메나 박사는 이탈리아에서
 열릴 전문가 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워크

숍에 참석하면서 그는 명상을 할 수 있도
 록 마련된 방에 자주 가서 기도도 하고 독
 서도 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그날도 그랬습
 니다. 선반에 있는 종교 서적들을 훑어보
 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흥미로운 책 두 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
 진 진주가 포함된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리그랜드 리차즈
 (1886~1983) 장로가 쓴 기이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그 두 책
 이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전부터 오해하고 있었던 성경 구
 절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설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신나고 좋아서 두 권의
 책을 전부 돈을 주고 복사하여 제본했습니
 다. 거의 1년 동안 저는 그 책들을 충실하
 게 읽으며 다른 성경 구절들과 그 내용들
 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직관적으로 저는
 그 내용들이 영감 받은 것들임을 알 수 있
 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저는 관습대로 크리
 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
 습니다. 거기서 저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에 살면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역시 고향
 으로 돌아온 제 사촌 오 시 에쿠푸를 만났
 습니다.”

오조에메나 박사는 사촌이 더 이상 담
 배나 맥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사촌에게 이유를 물
 었다가, 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만 구별하면 안 되고, 다른 책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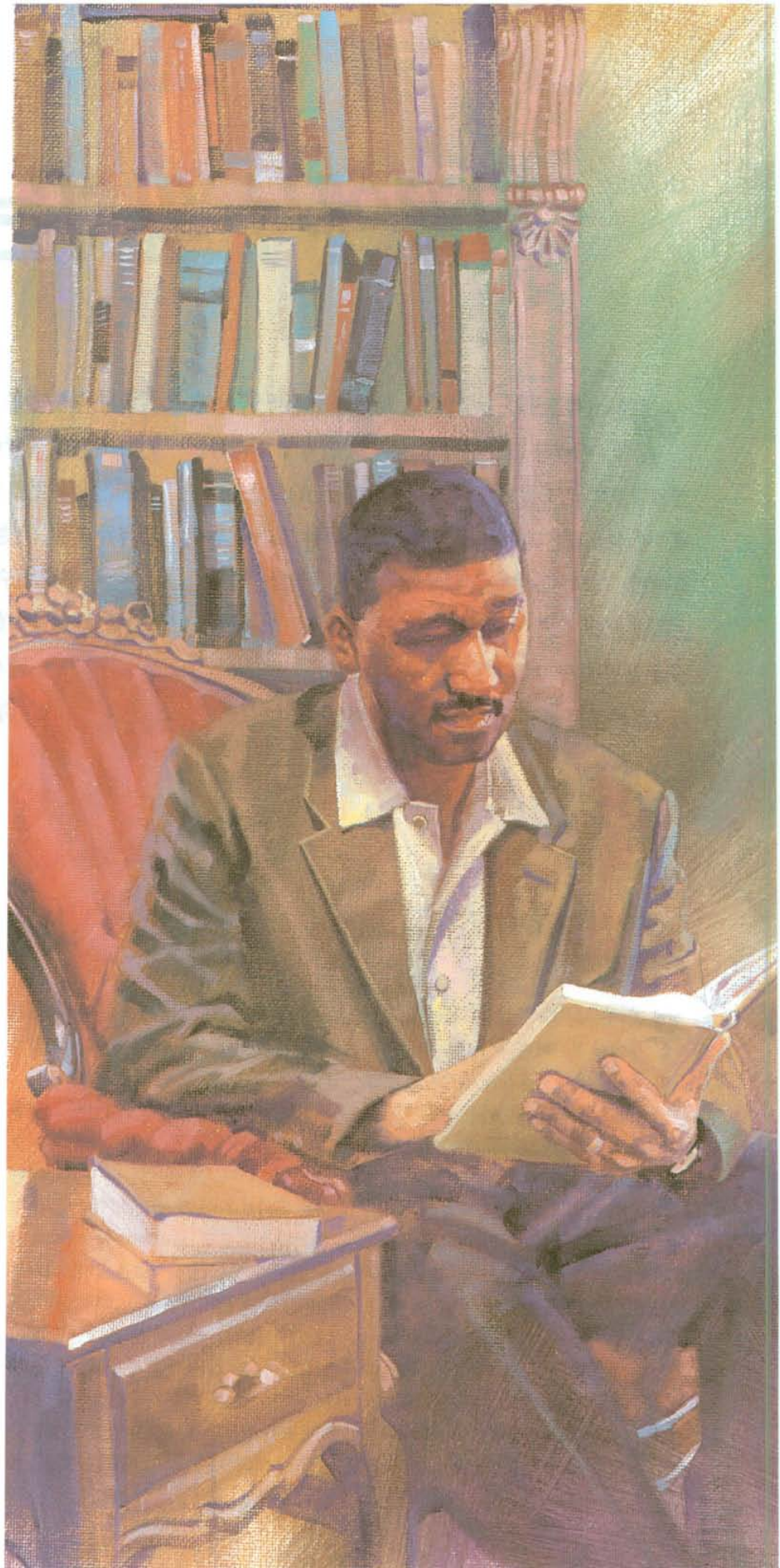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도 기뻐합니다.”라고 오조에메나 박사는 말했다. “우린 서로 꺼안았고 저는 그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 주고 두 권의 보물을 보여 줬습니다. 그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복사한 것들을 포함하여 라고스에서 가져 온 많은 교회 책들을 제게 보여 줬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는 제가 있는 에누구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미국 밖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약속한 대로 에쿠푸 형제는 사촌의 이름과 주소를 나이지리아 아바 선교부에 보냈다. 한편 오조에메나 박사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교사들을 찾아 나섰다. 오랜 노력 끝에 그는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선교사들이 그를 우리 부부에게 소개했던 것이다.

우와이포와 아카가 장로는 오조에메나 가족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오조에메나 박사와 그의 아내는 1990년 2월 4일에 침례 받았다.

“저는 이 교회의 게시된 책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위대하고도 일관된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조에메나 형제는 설명한다. “복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책

낸시 마릴렌 루이터

네덜란드에 사는 청년인 나는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2주일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 기간이 힘들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그 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2주 동안에는 그분과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24시간을 생각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선교 사업 하는 꿈을 꿴다.

열의는 충만했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힘들고 별 성과가 없었다. 첫 주가 다 끝날 무렵에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그날 나는 저녁 내내 물몬경을 읽었다.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계속해서 가가 호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기를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했다.

어느 날, 나는 4년 동안이나 구도자로 남아 있었던 여자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더 아름다운 책”을 찾았기 때문에 물몬경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녀의 집에 갈 때, 나와 동반자는 그녀에게 물몬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확신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사랑과 교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책의 일부를 펼쳐 보이면서 마치, 이런 내용은 당신네 책에 없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도 나는 그 해 세미나리 시간에 물몬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한 구절들을 알고 있었다. 난 곧 바로 그 구절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내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끝마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물몬경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었지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책인 물몬경을 다시 읽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몬경에 대한 내 자신의 간증

베스자이다 베즈 리베라

나는 항상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갖기를 원했다. 나는 부모님이 물몬경을 읽고 기도해 보셨기 때문에 간증

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경을 끝까지 읽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신앙이 성숙해진 뒤인 청소년기에 침례를 받았다. 나는 아주 아름답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물론경의 몇 부분을 읽었고 부모님과 다른 이들로부터 물론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간증이 필요했던 것이다.

세미나리 시간에 나는 내가 배우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경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미나리의 마지막 해에 우리는 물론경을 읽었다.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경전을 더 열심히 읽고 좀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세미나리 공책에 필기를 조심스럽게 해 나갔다.

결국은 물론경이 참되다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성신의 증거가 내 마음에 찾아들었다. 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누구나 물론경과 다른 모든 경전에 대한 참된 간증을 얻을 수 있음을 안다. 경전은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성신의 권세로서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5)

더 많은 것을 갈망함

리세어 보딘 존스

자주 사용한 탓에 책 귀퉁이는 말려 있었다. 페이지들은 구겨지고 찢어진 부분도 있었다. 성구에는 온통 색칠이 되어 있었고, 여백에도 글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파란색 표지는 거의 뜯겨지기 직전이고 금박 글자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물론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아홉 살 때 받은 것인데, 열여덟 살인 지금도 내 것은 새 것처럼 보였다. 표지와 페이지들은 모두 깨끗하고 뽀뽀했다. 펼쳐 본 적도 별로 없었으며 메모된 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렇게 낡은 물론경은 처음 봤다. 내 친구는 경전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전 공부를 한 것이다. 나도 물론경을 읽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책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물론경과 그녀의 눈빛을 볼 때면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 왔던 말씀들에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물론경을 읽을 때, 성신이 함께 하길 기도하면서 매일 몇 번씩 읽기 시작했다. 내용을 상고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

을 연구했다.

나는 전에도 자주 보았던 성구들을 찾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이서 32:3) 그 말씀을 자주 읽었지만 내가 기쁘게 지킨 적은 없었다.

경전을 읽는 가운데 나는 언제부터인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내용을 보기 시작했다. 물론경을 읽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더 이상 지루한 일이 아닌 축복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의 물론경은 아직 친구의 것처럼 낡지 않았다. 페이지들은 아직도 비교적 깨끗하며 자주 사용하지 않은 덕에 표지도 새것처럼 그대로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친구의 것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쁘게 지키는 자들을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

"그 책 좀 봅시다!"

코크 뉴웰

나는 내 동반자와 함께 콜롬비아의 메델에 있는 안티오키아 대학 부근의 그늘진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터라 한



대학생이 우리쪽으로 걸어오면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단단히 각오를 했다. 그가 우리에게 뛰어올 때, 우리는 꿈쩍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책 좀 봅시다!” 그는 내 손에 있는 물문경을 가리켰다.

나는 파란 표지에 모로나이 천사의 금빛 상이 새겨진 책을 들어 보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말했다. “원하면 가지세요.”

그가 책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가 한 다음 질문을 듣고 안심했다. “난 당신들을 알아요. 이 책을 어디서 구했죠?”

나의 동반자는 이 임지로 온 지 3일 밖

에 안됐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청년의 질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전에 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도 본 적이 있어요. 7년 전에 꿈 속에서 이긴 하지만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꿈 얘기를 시작했다. “저는 금빛 형상이 표지에 있는 종이 표지의 단순하고 파란 책을 보았어요. 그 남자는 긴 옷을 입고 있었고 나팔 같은 걸 불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그때의 느낌이었다. 그는 그 책이 중요하고 완전하며 참되다는 인상을 매우 강

하게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책을 보기 전까지는 한번도 직접 볼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곧 후안 길레르모 메히우라는 그 대학생에게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각 원리마다 그의 반응은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는 자기가 오래 전에 배운 것을 단지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주에 그는 물문경을 다 읽었고 토요일에 침례를 받았다.

수개월 후에 내가 귀환할 때, 그는 지부의 장로 정원희 회장이 되어 있었다. 꿈속의 책이 7년 후에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

무대 뒤에서

피터 비 가드너

나의 청소년 시절에, 우리 스테이크에서는 거의 매년 "로드쇼"를 개최했었다. 그것은 온 스테이크가 활동실에 모여서 각 워드 별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마추어 수준의 음악극을 공연하는 재미있고 웃기는 행사였다. 행사가 있기 수주일 전에 각 워드의 지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즐거리에 엉뚱한 노래들과 춤을 만들어서 내켜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국적인 의상들을 강제로 입혔다. 우리의 로드쇼들은 전통 연극은 아니었지만 아주 재미있었다.

내가 참가했던 많은 로드쇼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열여섯 살 때, 아버지는 스테이크장단의 일원으로 계셨는데, 당시 스테이크장단은 각 워드가 의상이나 분장에 반짝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반짝이는 가루들이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면 아주 멋있었지만 준비하면서 사용하는 워드의 각 방에 있는 카페트와 가구들에 묻고는 했던 것이다. 로드쇼는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스테이크장단은 이러한 조치가 안식일을 위해 집회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해 로드쇼에 대한 열정과 선의의 경쟁 때문에 스테이크장단의 권고는 크게 무시되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나는 건물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안식일을 위해 준비된 공과실 중 한 곳에서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과실을 둘러보며 바닥에 뿌려진 반짝이들을 심각하게 살피고 있었다.

"대부분의 워드들이 반짝이를 썼는데요." 난 당연한 말을 했다.

"대부분의 공과실이 이 모양일게다." 아버지는 한숨을 지으셨다. "반짝이를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었니?" 아버지는

실망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기분이 풀어지시길 바랬다. 가족들을 모두 찾아서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 아버지는 차 열쇠를 가지고 문 쪽으로 가셨다.

"어디 가세요?" 난 물었다.

"스테이크 센터로 간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위해 청소를 해야겠다. 너도 같이 가지 않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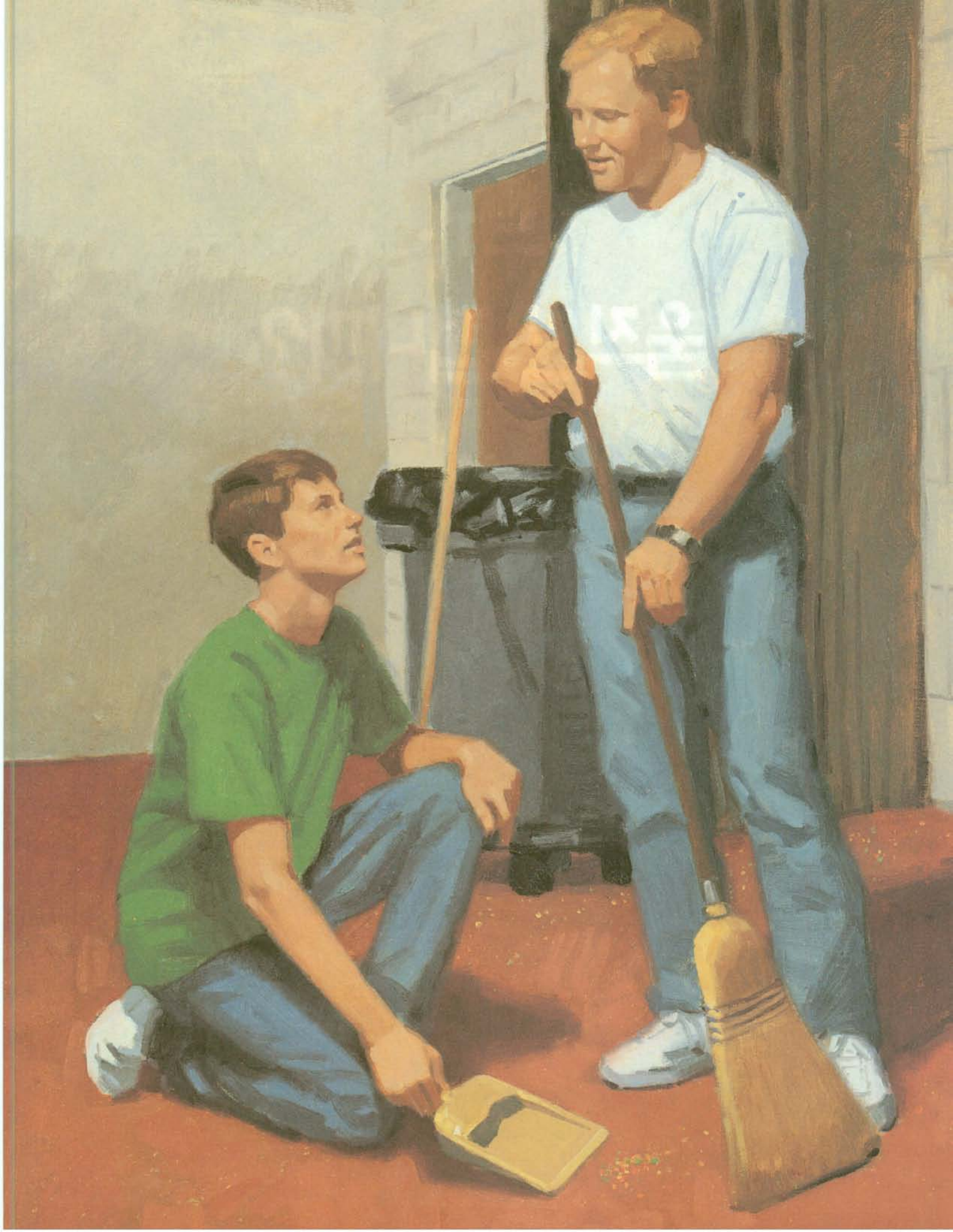
나는 토요일 밤의 남은 시간을 청소나 하면서 보내기는 솔직히 싫었지만 아버지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가기로 결심했다.

스테이크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는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다. 청소를 하면서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졌고 우리가 할 일에 열성까지 보이셨다. 일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나의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비록 청소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일하면서 즐거웠고 최대한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다. 자정이 지나서야 안식일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졌다.

다음날 어젯밤의 상태와 비교해서 아주 깨끗해진 공과실들을 보면서 난 특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일 관리인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던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난 뵈 적이 없다.

요즘 그 때의 로드쇼를 생각해 보면 의상이나 음악 등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공연이 끝난 뒤에 아버지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바닥을 진공 청소기로 밀고 반짝이들을 쓸고 주우시던 모습밖에 없다. □



물론 메시지

오늘 당신이 어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있다면...

누가 움직인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3; 마태복음 6:21, 24 참조)

“나와 함께 행하라”

어느새 새로운 천년으로 접어든 이 시기에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말일성도인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의미가 실로 엄청난 것임을 알고 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지상에 보내시어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최소한 두 가지 일을 이루시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과업은 아담의 죄와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도 속죄하시어, 모든 인류를 타락에서 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두 번째 큰 과업은 온 인류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의로운 생활과 친절과 자비와 동정의 온전한 모범을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4쪽)

살아 계신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 예언자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니파이이서 25:26)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복지를 친히 염려

하시는 살아 계신 영화로운 존재로서 경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서 사셨다가 돌아가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살아 계셔서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종들의 개인적인 계시와 영감 받은 계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그분의 종들의 노력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주님의 친절하신 보살핌

칠십인의 일원인 브루스 시 하펜 장로는 이렇게 간증했다. “우리가 각자는 죄와 게으름에서 시작해 슬픔과 좌절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그러한 고통에서 들어오려져 불사 불멸과 영생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나라를 타고 멋지게 비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의 끝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도의 벗, 1997년 4월호, 48쪽)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시고 돕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어떤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 결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로 축복 받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해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실하고 뜻깊게 자주 금식을 하였고 제 생애에 처음으로 경전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겸손한 간구를 들으셨고 사랑의 팔로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선한 길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후 저는 행복과 성공과 기회가 저에게 찾아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혼 후: 장애를 제거함”, 엔사인, 1985년 8월호, 50쪽)

우리는 “나와 함께 행하라”(모세서 6:34)라고 하신 구세주의 친절한 권고를 따름으로써 구세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헌터 대관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그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4쪽) □





날개

앤 엘빙턴 린치

그림: 캐리 헨리, 모델들이 포즈를 취함

지역 초급 대학에서 성인 고등학교 반의 영어를 3년째 가르치는 첫날에 윌리엄을 만났다. 그는 작은 키, 검은 눈동자, 곱슬머리 금발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으며 깨끗하지 못했고 곧 알게 되었지만 거의 문맹에 가까웠다. 그때는 젊은이들 사이에 긴 머리가 유행이고 마약 문제가 심각해질 무렵인 70년대 초였다. 마약 문화의 희생자가 또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니 슬퍼졌다.

나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 수업 첫날에는 항상 그렇듯이 반원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글을 쓰라고 지시했다. 이 학생 저 학생을 보다가 나는 연필을 이상한 모양으로 쥐고 계속 연필 끝에 침을 바르며 문장을 쓰는 데 애를 먹는 윌리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윌리엄의 얼굴은 종이에 거의 닿을 듯 했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머지 반원들은 과제를 비교적 빨리 끝낸 뒤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냈다. 윌리엄은 몇 줄을 쓰는 데도 40분이 걸렸으며, 그가 내게 건네줬을 때, 난 그 글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내가 종이를 보고 있는 동안 그는 내 책상 옆에 서서 날 쳐다봤다.

“읽어 드릴까요, 그러길 원하세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

“제 이름은 윌리엄이고 빈 주차장에 있는 차안에서 정부의 연금을 타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열 아홉 살이고 열 한 살 때부터 알콜 중독이었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봐요, 누가 가르쳐 주면 전 배울 수 있어요. 아까 그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전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허클베리 핀을 줬다.

나는 읽기와 쓰기를 거의 못하는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철자를 다 틀리게 썼구나.”라고 내가 말했다.

윌리엄은 당황한 듯 보이며, “전 배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좋아, 철자를 다시 써줄 테니까, 내일 오면 내 앞에서 다시 써 봐.”

“철자 시험이군요,” 그 말이 마치 마법의 단어인양 그는 말했다.

나는 다른 곳을 보며 말했다. “이봐, 윌리엄...” 나는 그가 수업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실력이 워낙 떨어져서 금방 뒤쳐질 것이고 따라 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려고 했다. 나는 그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신에 나는, “네 기본 실력에는 한계가 있어, 얼마나 노력할 작정이니?”라고 말했다.

그는 날 쳐다봤다.

“우리는 셰익스피어나 트웨인 같은 작가들을 공부하게 될 거야.”

“누구요?”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마크 트웨인.”

“그래요?”라고 말한 뒤 잠시 후에 그는 “전 배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난 말했다,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그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그는 제일 먼저 교실에 왔다.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르치는 동안 내게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으며, 어제처럼 눈썹을 찌푸리며 내 말에 귀기울이면서 입은 약간 벌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내 책상 옆에 서서 오랫동안 날 쳐다봤다.

나는 신경이 쓰여서 “왜 그러지?” 하고 물었다.

그는 "철자 쓸 준비 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가 돼 있었다. 그는 단어를 전부 다 암기했고 내가 단어를 부를 때마다 재빨리 써 내려갔다.

그는 내가 맞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며 채점을 한 뒤, A+라고 적고 커다랗게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쓰는 것을 전부 지켜봤다. 나는 처음으로 윌리엄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시험지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접더니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말했다. "읽기 연습을 하고 싶어요. 제가 빌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나는 말했다. "적절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 난 서랍을 열어 서류와 책들을 뒤졌다.

"저건 어때요?" 그는 허클베리 핀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머리를 흔들었다. "이건 너한테 너무 어려워."

그는 말했다. "저는 평생 힘든 일을 해왔어요."

나는 내 딸의 책인 나는 법을 배운 코끼리 엘리를 꺼냈다.

그는 말했다. "그건 애들 거잖아요."

나는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초보자들을 위한 거야."

"아까 그것을 원해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동화책을 펼쳐서 단어 하나 하나를 가리키며 읽기 시작하자 그는 옆에서 날 지켜보며 들었다.

"이제 내가 할게요." 그는 머뭇거리며 아주 힘들게 읽었다. "그 것봐요, 누가 가르쳐 주면 전 배울 수 있어요. 아까 그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전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허클베리 핀을 줬다.

매일 나는 윌리엄을 주차장으로 보내면서 한 손에는 단어의 목록을 다른 쪽 팔에는 내 딸의 동화책들을 끼워 줬다. 매일 아침 그는 완전히 숙지한 채 왔다. 몇 주 후에 그는 마크 트웨인의 책을 돌려줬다. 그는 "다 읽었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자부심에 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주에 나는 비누, 수건, 타월, 그리고 탈취제를 쇼핑백에 넣어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 이란다."

그는 안을 들여다 본 뒤, 놀란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하지만 그 다음날 윌리엄은 깨끗한 모습이었다. 그는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읽기와 쓰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의 문학책에 나오는 시를 읽는 것에 참여할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매일 수업이 끝난 뒤에 나와 한시간씩 얘기를 나눴다. 실은 그가 내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고 난 대답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곧 다른 세 명의 학생들도 방과 후에 남기 시작했다. 그 중에 수지는 나중에 공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고 조디는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조지는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그 해 봄에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조지의 죽음은 학생들을 매우 슬프게 했고, 그날 우리는 영원한 질문들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여기서 뭘 하는 것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은 힘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지식뿐이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이 배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했다. "한 가지는 경험을 통해서인데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지식을 얻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다른 방법은 독서이다." 나는 그들에게 날개를 펼치고 아직 젊고 에너지와 열정이 넘칠 때, 배우라고 격려했다.

어느 날 윌리엄은 그가 도서관에서 복사해 온 인용구들을 우리에게 소개했다. 그는 특별히 "지식은 우리를 날개 해주는 날개이다."라는 말을 좋아했다.

"나는 걸 보세요, 선생님." 그는 팔을 펼치고 날개짓을 해서 우리들을 웃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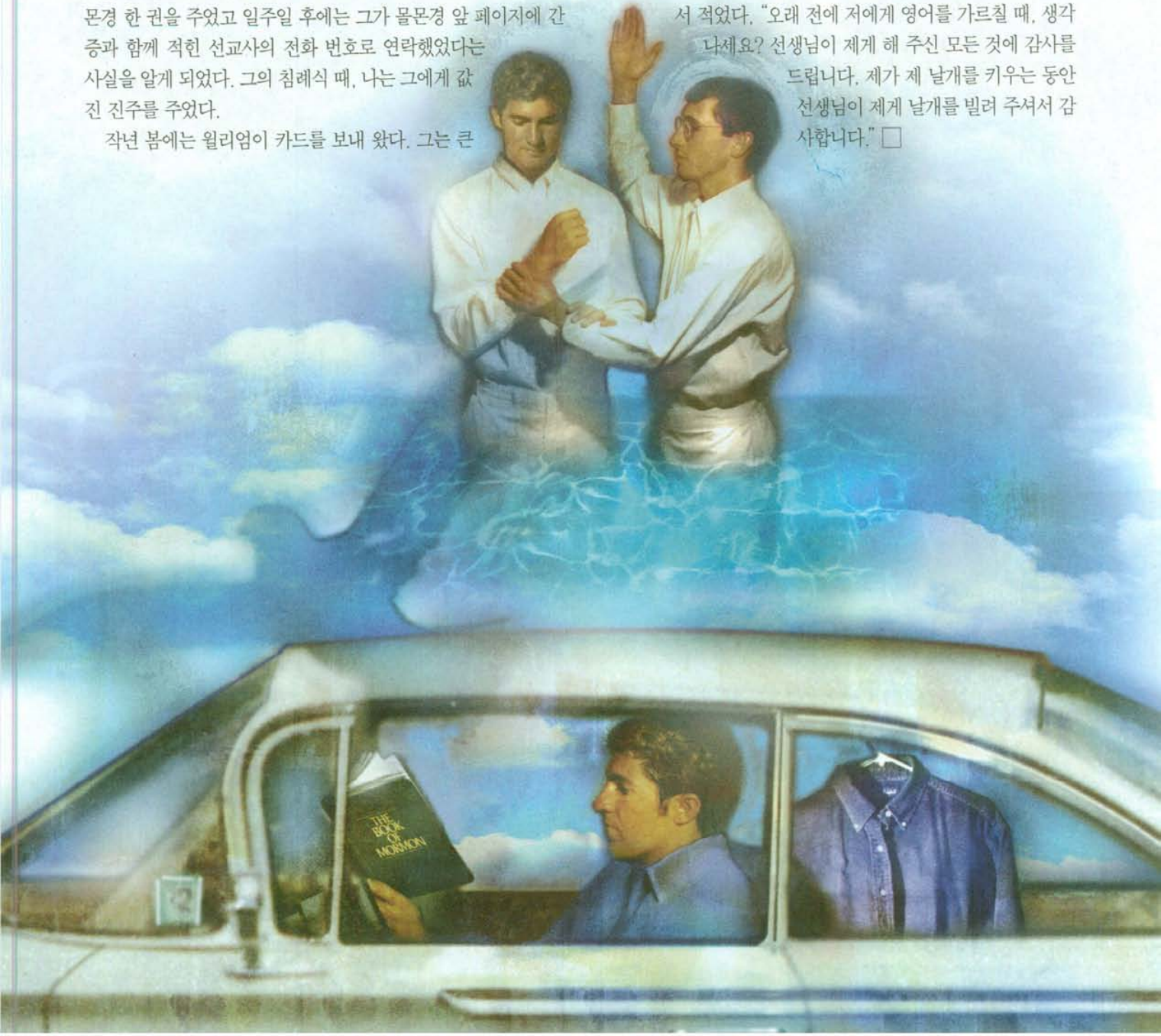
윌리엄(이 천재는 내가 가르쳤던 유일하고도 진정한 천재였다)은 내 영어반에서 2년간 공부했다. 그가 졸업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는 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지역 초급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 했다. 가끔 그는 주중에 내 사

한번은 그가 물문경을 빌려 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물문경 한 권을 주었고 일주일 후에는 그가 물문경 앞 페이지에 간증과 함께 적힌 선교사의 전화 번호로 연락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실에 들어서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흥분을 나와 함께 나누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내 책 중에 한 권을 빌려서 재빨리 읽고 돌려줬다. 한번은 그가 물문경을 빌려 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물문경 한 권을 주었고 일주일 후에는 그가 물문경 앞 페이지에 간증과 함께 적힌 선교사의 전화 번호로 연락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침례식 때, 나는 그에게 값진 진주를 주었다.

작년 봄에는 윌리엄이 카드를 보내 왔다. 그는 큰

대학에서 스페인어와 미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는 허클베리 핀을 공부했어요," 그가 적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저는 언어에 대한 축복을 받았나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적었다. "오래 전에 저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제게 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날개를 키우는 동안 선생님이 제게 날개를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셉 에프 스미스

화평의 왕을 따름

질 멀베이 데르 및 헤이디 에스 스윈튼



교회의 제6대 대관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미주리의 핏박 기간 동안인 1838년 11월 13일에 출생했다. 그는 중전 협정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지 8일 후인 1918년 11월 19일에 타계했다. 슬픔과 고통, 폭력과 핏박에 너무나 친숙해 있었던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요 의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했다.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쳤으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모범을 통하여 의로움을 전파”(*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 1998년], xxiii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구속주에 대한 힘찬 증언은 그의 전도의 핵심이요 일상 생활의 중심이었다. 교회의 제10대 대관장이 된 그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렇게 재미있는 기억을 하고 있다. “아버님은 마음

이 온유하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분보다 더 동정심이 많은 분이 나,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나약한 사람의 짐을 기꺼이 나누려 하며,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 대신분을 모든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었으며,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400쪽)

조셉 에프 스미스는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모로나이서 7:3)에게 오는 평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일성도들에게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전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히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1916년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저 배울 뿐입니다. 저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날과 달과 해를 거듭해 가며 참 진리를 배워, 하나님이 아시듯 그것을 알게 되어 구원받으며, 그분의 면전에서 승영하는 순간이 오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xiii쪽)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스미스 대관장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

충실한 아들이자 의로운 남편이요 아버지였으며, 27세 때부터 80세에 사망할 때까지 대관장단에서 봉사했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그리스도께서 빛 안에 계신 것처럼 빛 안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했다.



하이람 스미스

회를 갖게 된다. 그 기간 동안 그의 가르침을 묶어 놓은 책이 제 3종 교과 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지역의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교재가 된다. 그의 설교와 저서에서 발췌하여 엮은 책은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총서 가운데 두 번째 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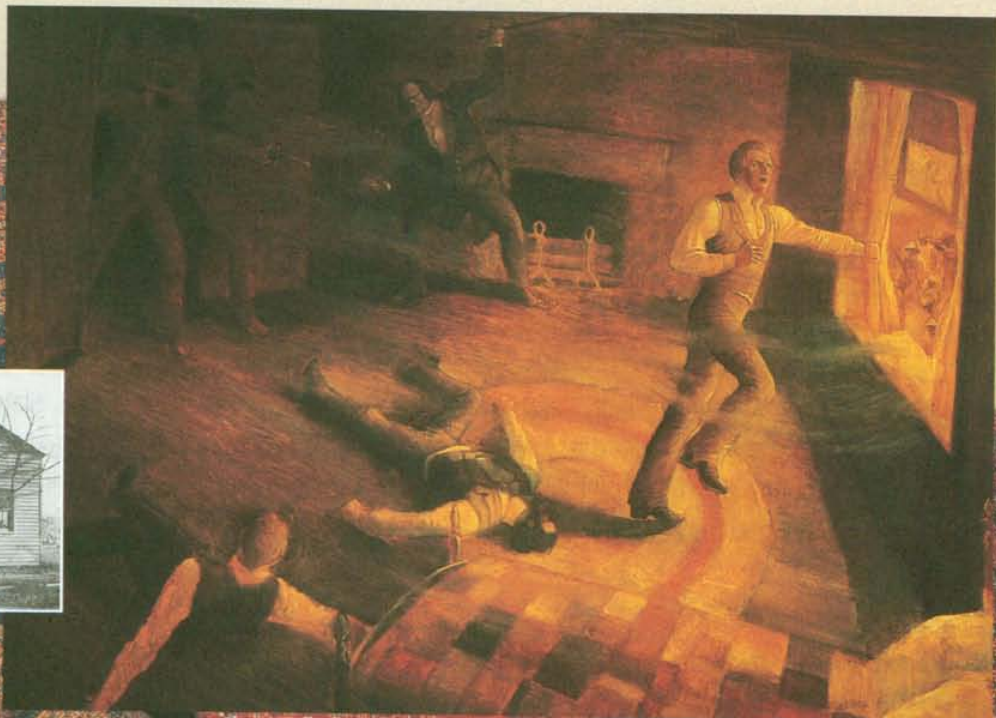
순종과 희생의 유산

조셉 에프 스미스가 평강의 왕을 따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것은 어린 시절부터였다. 그는 부모님들로부터 구주께서 혼란과 역경 중에서도 순종과 희생과 봉사의 모범을 따르셨던 이야기를

배웠다.

1838년의 늦가을에 하이람과 매리 필딩 스미스는 기존의 미주리 정착민들과 새로 도착한 수많은 말일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기간에 자신들의 첫째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주지사는 말일성도들에게 그주를 떠나지 않으면 "근절" 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이람과 그의 동생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 및 다른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부당하게 투옥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삶을 요약했다. "나는 부친이 폭도들에 의해 투옥되신 지 13일 후에 미주리 주 콜드웰 군의 파웨스트에서 출생했다."(조셉 에프 스미스 일지, 1838년 11월 13일, 친필 문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부 기록 보관소)

아래 왼쪽: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하이람 스미스의 집, 1905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고나장이 그곳을 방문했다. 아래 오른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부친인 하이람과 삼촌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44년에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순교했다.





매리 펠딩 스미스

기나긴 4개월 동안 하이람과 요셉 및 다른 지도자들은 리버티 감옥에서 고통 당했다. “사랑하는 아기 조셉 에프”를 낳은 매리 펠딩 스미스는 새로 출생한 아기와 하이람이 1837년에 사별한 첫 부인 제루샤 바든 스미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다섯 명의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야 했다.

매리가 몸져 누워 있는 동안 악한들이 스미스의 집을 습격하여 가족들의 재산을 강탈해 갔으며, 이 와중에 신생아인 조셉 에프는 그들이 뒤집어 버린 침구에 깔려 거의 질식사할 뻔했다. 매리와 자녀들은 매리의 자매인 머시 펠딩 솜슨의 도움을 받아 미주리로부터 강제 추방 당하는 성도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하이람은 1839년 4월 22일에 일리노이 주 퀸시에서 마침내 가족을 재회했으며, 그 가족은 6월에 다른 성도들과 정착하기 위해 미시시피 강을 타고 일리노이 주 나부로 갔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인 1874년 11월 13일, 서른여섯 번째 생일을 맞은 조셉 에프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이렇게 적었다. “춥고 울썸스럽고 쓸쓸한 날씨는 내가 태어났을 때의 어두운 시기에 딱 어울리는 날씨였다. 당시 부친 하이람과 삼촌 요셉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성도들은 무자비한 폭도들에 의해 미주리에 있는 그들의 거처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내 영혼의 밝은 햇살조차도 그 파란 만장한 시절의

우울하고 음침한 기억에 의해 내 영혼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을 완전하게 털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그분의 부드러운 섭리는 뚜렷하게 나의 어린 시절부터 펼쳐졌으며, 나의 나날은 겸손과 지혜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좋아졌다. 시간이 흐르고 또 경험이 쌓임에 따라 내 인생의 목적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갔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47쪽)

비교적 평화로웠던 나부에서의 5년 동안 조셉 에프는 그의 부친이 교회 축복사 및 예언자 요셉의 대관장 보조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조셉 에프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과 그의 삼촌인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 부름에 관해 배웠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 … 습니다. 그는 당대에 혹은 수세기에 걸쳐 보아도 다른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영감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던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1쪽)

요셉과 하이람은 1844년 6월 27일에 폭도들에 의해 살해당

아래 왼쪽: 조셉 에프는 1848년에 아홉 살의 나이로 평원을 건넜다.
아래 오른쪽: 그의 가족은 1850년에 솔트레이크시의 어도비 벽돌 가옥으로 이사했다.





하와이 왕족 장자 상속권의 상징. 이 걸개 있는 펜던트는 지도력에 대한 표창으로 스미스 대관장에게 주어졌다. 이 펜던트는 고래 이빨과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했다. 조셉 에프가 채 여섯 살이 안되는 시기였으나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 당한 후의 부친의 시신과 그의 삼촌의 시신의 잔상” 오랫동안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직후인 19세 가량의 조셉 에프 스미스



동안 그에게 남아 있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영문, 538쪽) 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픔과 비통함으로 채웠던 … 끔찍한 장면”을 결코 잊지 않았지만, 조셉 에프는 자신과 그의 가족과 교회에 순교가 얼마나 거룩한 의미를 갖는지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v쪽) 후에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신의 생의 목적을 성취했으며 자신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스미스 대관장은 신앙과 희생에 대한 결의를 굳게 지켜왔던 그의 모친에 대한 사랑 가득한 추억을 좋아했다. 하이람이 순교한 1844년부터 자신이 사망한 1842년까지 8년 동안, 그녀는 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가족들을 잘 이끌었으며 가정과 농장을 마련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키웠다. 스미스 대관장은 그의 모친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현재적인 편안과 축복을 위해 밤낮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며 노력하려고 하셨던”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5쪽) 의지를 영원히 소중하게 여겼다. 모질고 힘겨운 시기 동안, 그는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v쪽)라고 가르친 어머니의 신념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조셉 에프는 매우 젊은 시절부터 선

사진 촬영: 레이너 리쉬먼,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화와이어 판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와 1915년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증정 받은 화환인 레이를 포함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일부 소장품

교 사업을 하면서 “세상의 가장 먼 변경”(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181쪽)까지 구주의 사업을 넓히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는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샌드위치 아일랜드(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1854년 10월에 쿨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하와이 언어와 문화에 몰두했다.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이 젊은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곧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습관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음식과 의복과 집과 다른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낯설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그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단절은 계속되었으나, 내 생애에서 그 짧았던 기

간 동안의 역사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예언자부터 아들까지: 선교사로 봉사하는 아들들에게 준 조셉 에프 스미스의 조언, 하이람 엠 스미스와 스코트 지 케니 편[1981년], vii쪽)

그는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방언의 은사를 열심히 간구했으며 1백 여일 만에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 그는 복음을 가르치고 불평등을 잠재웠으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악령을 내어 쫓았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와이 마우이 섬과 몰로카이 섬에서, 그는 관리 장로로 봉사했으며 사랑을 받고 베푸는 것을 배웠다. 그는 1856년 3월에 작성한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마우이 섬의 한 형제가] 나에게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주고 자신은 맨발로 갔다.… 이것은 그가 나에게 보여 준 사랑의 유형이었으며,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일지, 1856년 3월 1일)

그는 몰로카이에서 마 마후히이 자매로부터 모성애가 담긴 보살핌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심하게 아파서 누워 있었던 3개월 동안 정성으로 간호해 주었다. 그녀는 그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그도 그녀를 잊지 않았다. 그가 거의 50년이 지난 후에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오세파, 이오세파”라고 외쳤다.



1861년 영국 리버풀에서의 조셉 에프 스미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어머님, 어머님, 저의 사랑하는 어머님”이라고 화답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92쪽)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과 너무나 다르게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그의 첫 번째 선교 사업에서 신앙의 열렬한 수호자가 되었다. 두 번째 선교 사업에서는 불화를 피하고 평화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는 1896년에 그의 아들 하이람에게 1860년대에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들려주었다. “말을 하던 중이었지, ‘오늘날의 십이사도의 권능은 그리스도 시대 당시의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현대 사도들의 말씀은 고대 사도들의 말씀처럼 훌륭합니다.’ 라고 하자, 청중 속에 있던 누군가가 ‘불경스런 말 마!’ 라고 소리치더군요. 이 말에 내 젊은 혈기를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더군요.”

혈기 왕성한 이 젊은 선교사는 적대자와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으며, “사탄 백작의 대표자들이 낮이 별장게 될 때까지 그들을 자극했다.” 스미스 대관장은 그의 화의 폭발을 통해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후부터 나는 열정을 다스렸고 많은 청중 앞에서는 보다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했으며 말로 비난을 받을 때에도 화내는 모습을 절대 피했다. 사실 나는 비난을 받아도 비난하지 않게 되었으며 모욕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게 되었고 오로지 온유하고 점잖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항상 나의 청중들로 하여금 나와 나의 동료들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고 평화와 선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선교 사업이 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해 주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임을 느끼게 하고자 노력했다.” (하이람 엠 스미스에게 보낸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서한, 1896년 5월 18일, 진리와 용기를 갖고: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서한, 조셉 필딩 맥콩키 편(날짜 미상))



위: 1895년 경의 조셉 에프 스미스와 가족 일부. 왼쪽: 1916년에 결혼 50주년을 맞은 조셉 에프와 줄리나 랭슨 스미스



대관장단은 1915년(여기에는 1917년으로 보인다.)에 주례 가정의 밤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제2보좌인 찰스 더블류 펜로스 부대관장,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부인인 줄리나, 제1보좌인 앤트 에이치 러드 부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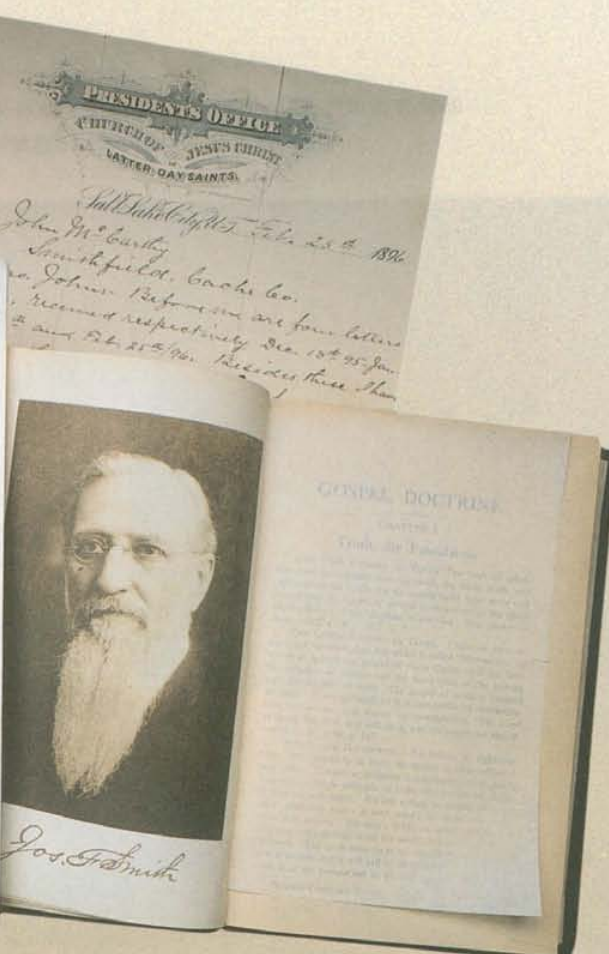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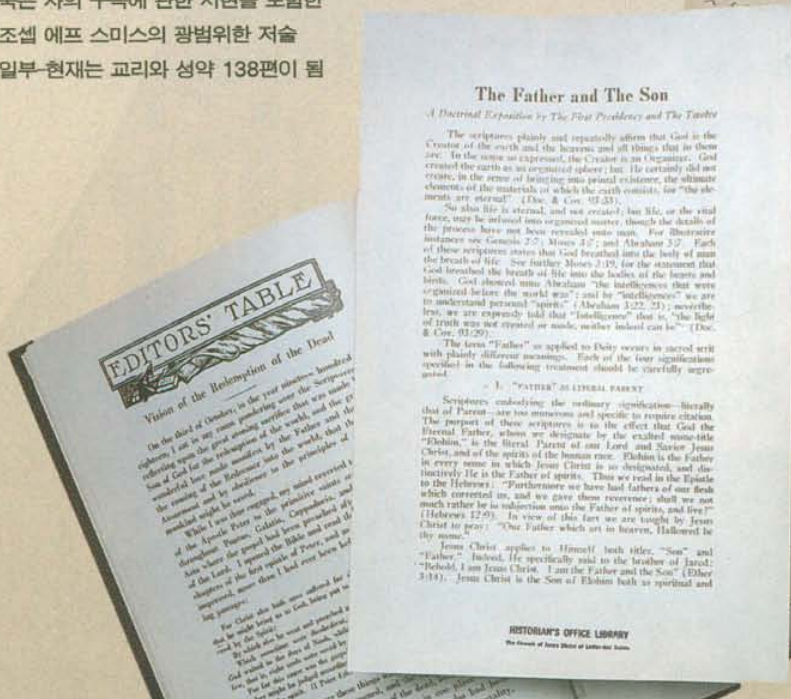
사람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

스미스 대관장은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의 원리들을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대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주님의 왕국, 의로움, 진보, 발전, 주님의 왕국에서의 영생과 영원한 증식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46쪽)라고 말씀했다. 그의 아들인 조셉 필딩 스미스는 그의 부친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켜 보았다. "[부친은] 거의 눈에 뜨지 않으면서 결코 넘치지도 않는 거룩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읍처럼, 그분은 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가족들이 의의 길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셨습니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449쪽)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헌을 포함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광범위한 저술 일부 현재는 교리와 성약 138편이 됨

이주 여러 차례 "죽음이 그의 집을 엄습하여 ... 그의 어린 자녀들이 그에게서 떠나갔을 때,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비통해 했는데, 그것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통해 하는 것과는 달랐으며 오히려 '소중한 보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았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455쪽) 1879년 7월 6일, 스미스 대관장은 딸인 로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난 그 애를 베개로 받치고 함께 마루를 거닐었다. 다시 생기가 솟아 한 시간 가량 그대로 있더니, 새벽 1시 40분에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우리가 얼마나 비통해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번으로 가족 가운데 다섯이 죽음을 맞았다. 모두들 꿈쩍이도 사랑하던 아이들이었건만! 오 하나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소서!"(*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28쪽)

그는 "영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44쪽)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며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절규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저의 가족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또 주 앞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도와 가르침, 합당한 영향을 얻기 위해 저에게 의지하고 있는 저의 가족



The Father and The Son

A Doctrinal Exposition by The First Presidency and The Twelve

The scriptures plainly and repeatedly affirm that God is the Creator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nd all things that in them are: In the same or expressed, the Creator is an Organizer, and created the earth as an organized sphere; but He certainly did not create, in the sense of bringing into partial existence, the ultimate elements of the materials of which the earth consists, for "the elements are eternal" (Doc. & Cov. 93:33).

No man lives in eternal, and not created, but life, or the vital force, may be defined into organized matter, though the details of the process have not been revealed unto man. For illustrious instance see Genesis 2:7; Moses 2:7; and Abraham 3:7. Each of these scriptures states that God breathed into the body of man the breath of life. See further Moses 2:19, for the statement that God breathed the breath of His own bodies into the bodies of the women and men. God showed unto Abraham "the intelligences that were organized before the world was"; and by "intelligences" we are to understand personal "spirits" (Abraham 3:22, 23); nevertheless, we are especially told that "intelligences" that is, "the light of truth was not created or made, neither indeed can be" (Doc. & Cov. 93:29).

The term "Father" as applied to Deity occurs in sacred writ with plainly different meanings. Each of the four significations specified in the following treatment should be carefully segregated.

1. "FATHER" AN LITERAL BARKET

Scriptures embodying the ordinary signification—literally that of Parent—are too numerous and specific to require citation. The purport of these scriptures is to the effect that God the Eternal Father, whom we designate by the exalted name-title "Elohim," is the literal Parent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of the spirits of the human race. Elohim is the Father in every sense in which Jesus Christ is so designated, and distinctively He is the Father of spirits. Thus we read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Furthermore we have had fathers of our flesh which corrupted us, and we gave these reverence; shall we not much rather be in subjection unto the Father of spirits, and live?" (Hebrews 12:9). In view of this fact we are taught by Jesus Christ to pray: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Jesus Christ applied to Himself both titles, "Son" and "Father." Indeed, He specifically said to the brother of Jared: "Behold, I am Jesus Christ. I am the Father and the Son" (Ether 3:14). Jesus Christ is the Son of Elohim both as spiritual and



1869년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대관장단 제1보좌인 조셀 에프 스미스가 맨 오른쪽에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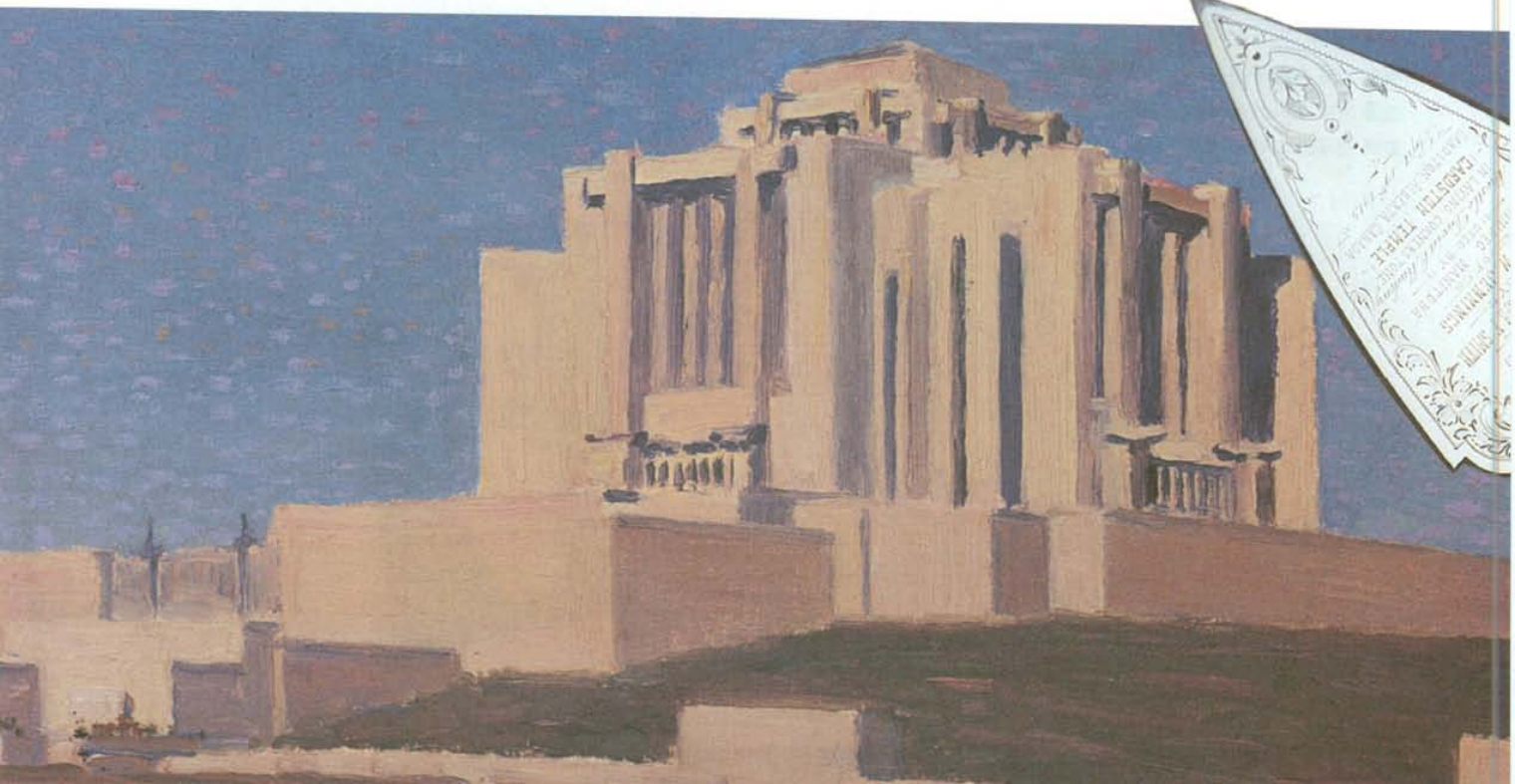
을 잃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44쪽)

그는 개인적인 평안을 찾는 데 있어서 가정과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종교적인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세속적이 되는 것. 이기주의, 무관심, 가정에서의 존경심 결여 등이 지금처럼 만연되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는 어떤 것이 조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사랑, 화평, 주님의 영, 친절, 자선, 회생 등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거친 말, 질투, 증오심, 욕설, 외설적인 말과 비방 등을 삼키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과 권능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실천으로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46~347쪽)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그는 이렇게 권고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시다... 여러분이 느끼듯이 그들도 같이 느끼게 하며, 여러분이 흥미를 갖는 일에 그들도 흥미를 갖도록 해

아래: 조셀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1913년에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을 위한 부지를 헌납했다. 오른쪽: 앨버타 성전 정초식에서 스미스 대관장에게 선사된 흙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가 사용했다.



주며,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듯이 그들도 복음을 사랑하게 해주며,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그들도 부모를 사랑하도록 해주십시오.”(복음 교리, 285쪽)

세상의 간교함에 맞서 가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1915년에 주례 가정의 밤을 소개했다.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은 가정의 밤을 가지면 평안과 큰 축복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족간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을 유혹하는 나쁜 영향이나 유혹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49쪽)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

사도이자 교회 대관장이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능력이 더욱 커졌으며 말일성도들이 평화로운 삶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27세인 1866년에 사도와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성임되었다. 그는 그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을 십이사도 정원회와 대관장단에서 봉사했다. 로렌 조스노우 대관장이 별세한 지 1주일 후인 1901년 10월 17일에, 스미스 대관장은 62세의 나이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6대 대관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었다.

교회 대관장으로서 처음으로 행한 연설에서, 그는 말일성도들이 겪은 조롱과 박해에 대해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적인 발표를 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변경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참된 빛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리려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에서 제공한 사진

스미스 대관장(가운데)을 포함하여 유타 주에서 온 사람들이 1888년에 워싱턴 디시에서 주승격을 위한 로비 활동을 했다.

고 하십니다. 양자의 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선을 행하고 부정을 발 아래 떨어뜨리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로움,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고양시키고, 우리 자녀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빛과 힘, 신앙, 그리고 권세의 샘으로 그들에게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심어 주는 것임을 알려 주려고 하십니다.”(복음 교리, 141쪽)

그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영

1905년 12월, 교회 지도자들은 요셉 스미스 기념비 헌납을 위해 버몬트 주 샤론으로 여행했다. 사람들이 구모라 언덕(아래)과 성스러운 숲(삽입)에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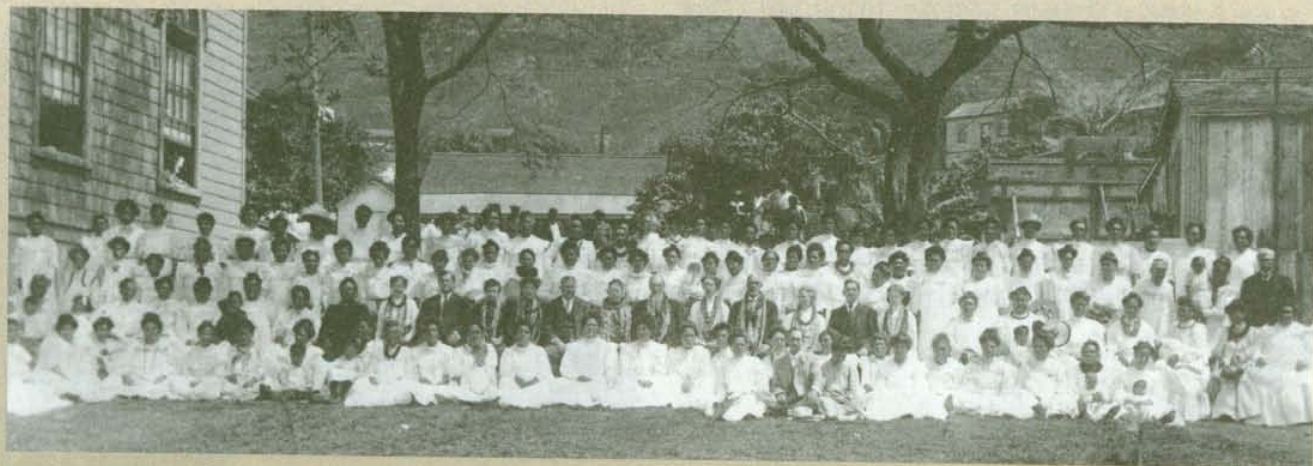


1906년, 스미스 대관장(가운데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운데 줄, 맨 오른쪽)와 찰스 더블류 니블리(가운데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영국 선교부를 방문했다.

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서로를 용서하고, 지금부터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도록”(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58쪽) 하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권고대로 생활했으며, 자신의 성품에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모질고 증오심 가진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을 단연코 거부했다. 그는 “세상의 영은 사악하다”(대회 보고, 1905년 4월, 86쪽)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라디

아서 5:22~23)라는 성령의 열매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적대감을 가진 언론인들은 그를 부정직한 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만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딸인 에디스 엘리너는 이렇게 회고했다. “학교에서 거짓된 기사를 손에 넣은 몇몇 사람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 저녁 아버지가 들어오 시자마자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아무런 조치도



1909년 호놀룰루에서 가족 및 많은 하와이 성도들과 함께 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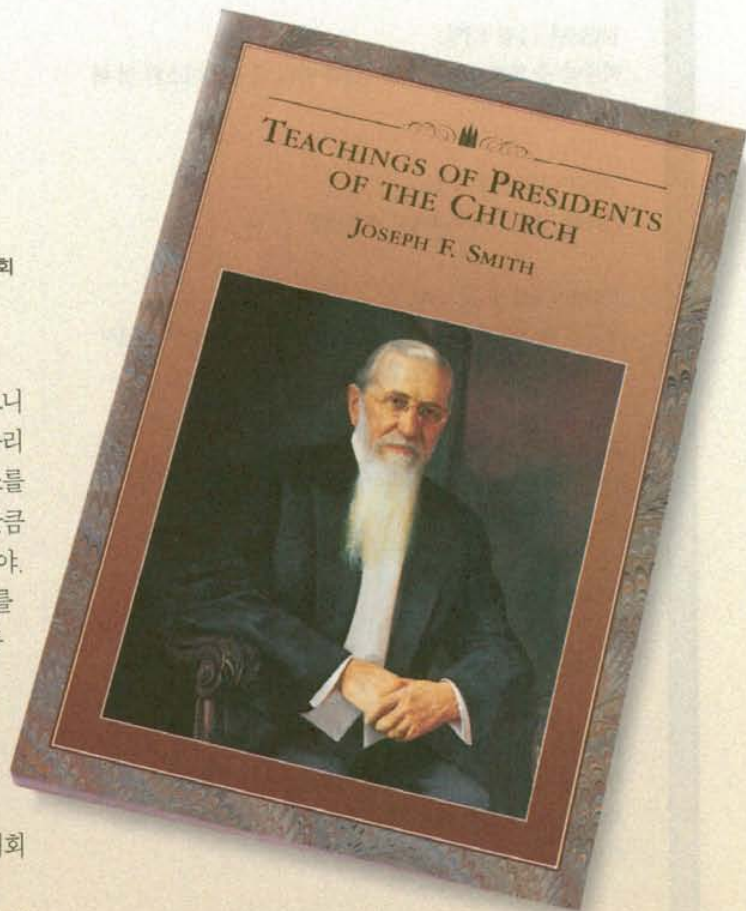
2000년과 2001년 동안,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된다.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거짓말을 인쇄하여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말하였다. '아가야, 그렇게 화내지 말아라. 그들은 털끝만큼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치게 할 뿐이야. 아가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니?'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257쪽)

스미스 대관장은 자신의 자녀들과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확인해 주었다. "사탄이 헛된 노력을 하고 가장 헛된 일을 하게 합시다. 주님께서 선한 대업을 위해 중국에는 그 사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2년 4월, 10쪽)

화평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용서의 영, 사랑의 영, 자비의 영,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삶,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표준에 도달 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427~428쪽)

그의 가까운 친구이면서 후에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했던 찰스 더블류 니블리(1849~1931) 부대관장은 스미스 대관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가장 인내심 강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매우 의로운 분노로써 비난하시지만 거의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불쌍한 죄인에 대해 동정심과 연민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추억,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9년 1월, 193쪽) 스미스 대관장이 가장 사랑했던 하와이인 친구 가운데 한 명인 룰레카 콜레카는 그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자 사랑으로



가득 찬 열린 마음의 소유자"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xxiii 쪽)라고 칭송했다.

1918년 11월 19일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사망했을 때 한때 그에게 "냉혹함과 적대감"을 표현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 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479쪽)

"우리가 이 지상에 오게 된 원대한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함"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52쪽)이라고 스미스 대관장은 가르쳤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빛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구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친분을 나누어,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길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57쪽) 평생 동안 구주에 대해 증거해 왔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분처럼 되"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148쪽)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에 관한 예언적인 증거를 남겨주고 있다. □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에서의 역사적 사건

1838년 11월 13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하이람과 매리 필딩 스미스의 첫 아
이로 출생.

1838~1839년 겨울:

가족이 강제로 미주리에서 추방당함.

1844년 6월 27일: 5세.

부친인 하이람과 삼촌인 오셉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카테지
의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당함.

1846년 가을: 7세.

어머니와 함께 나무에서 아이오와로 가기 위해 미시시피 강
을 건넌.

1848년 9월 23일: 9세.

우마차를 타고 평원을 건너서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함.

1852년 5월 21일: 13세.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시티 크리크에서 침례 받음. (당
시에는 8세에 침례 받는 것이 오늘날처럼 일반적이지 않았
다.)

1852년 9월 21일: 13세.

어머니 별세.

1854~1857년: 15~19세.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60~1863년: 21~24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64년: 25~26세.

하와이에서 다시 한번 선교 사업을 함.

1866년 7월 1일: 27세.

사도로 성임되고 브리검 영 대관장의 보좌로 부름 받음.

1874~1875년, 1877년: 35~36세, 38세.

유럽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함.

1880년 10월 10일: 41세.

존 테일러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시됨.

1889년 4월 7일: 50세.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시됨.

1898년 9월 13일: 59세.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시됨.

1901년 10월 17일:

교회의 제6대 대관장으로 지시됨. 교회 회원 수는 278,645
명.

1903~1907년:

교회가 유적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함: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
옥,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의 성전 부지 일부; 버몬트 주 샤
론의 요셉 스미스 출생지;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요셉 스
미스 1세 가족의 농장과 성스러운 숲.

1906년:

교회 대관장으로서 처음으로 재임 중 유럽 방문

1913년 7월 27일:

캐나다 앨버타 주 카드스톤에서 성전 부지 헌납.

1915년 4월 27일:

주례 가정의 밤 프로그램 소개.

1915년 6월 1일:

하와이 라이에에서 성전 부지 헌납.

1918년 10월 3일: 79세.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계시를 받음. 현재 교리와 성약 138
편임.

1918년 11월 19일: 80세.

교회 대관장으로 17년 동안 봉사한 뒤에 유타 주 솔트레이
크시티에서 별세. 교회 회원 수는 495,962명.

“호세, 안녕하세요”

토드 던

그림: 그레그 도르켈슨

칠레 산티아고 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어느 날, 나는 동반자인 패트리시오 알바레스 장로와 함께 선교부장의 허락을 받고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알바레스 장로의 할아버지를 방문할 기회 있었다.

병실을 찾아 들어섰을 때 우리는 온몸에 튜브와 철사를 둘러 쓴, 나이 지긋한 두 분의 노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노인은 알바레스 장로의 두 분 숙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알바레스 장로는 곧바로 그의 숙모들을 거들어 그의 할아버지를 돌봐 주었다.

나는 이 가족들의 간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알바레스 장로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기다리고 있는 사이, 나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노인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그 노인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입을 벌리고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노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가서 저 노인을 돌봐 주라!”는 어떤 강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분은 주변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이니까 내가 돌봐 줘도 소용없어. 게다가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걸”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어서 가서 저 노인을 돌봐 주라!”는 강한 느낌이 또 들었다.

이때 나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단지 인사 말을 하는 데 그 노인에게 해가 될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환자 노인이 있는 침대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조그만 노

랑색 카드를 보니 거기에는 이름이 “호세”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노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저 이름이 꼭 이 노인의 이름은 아닐 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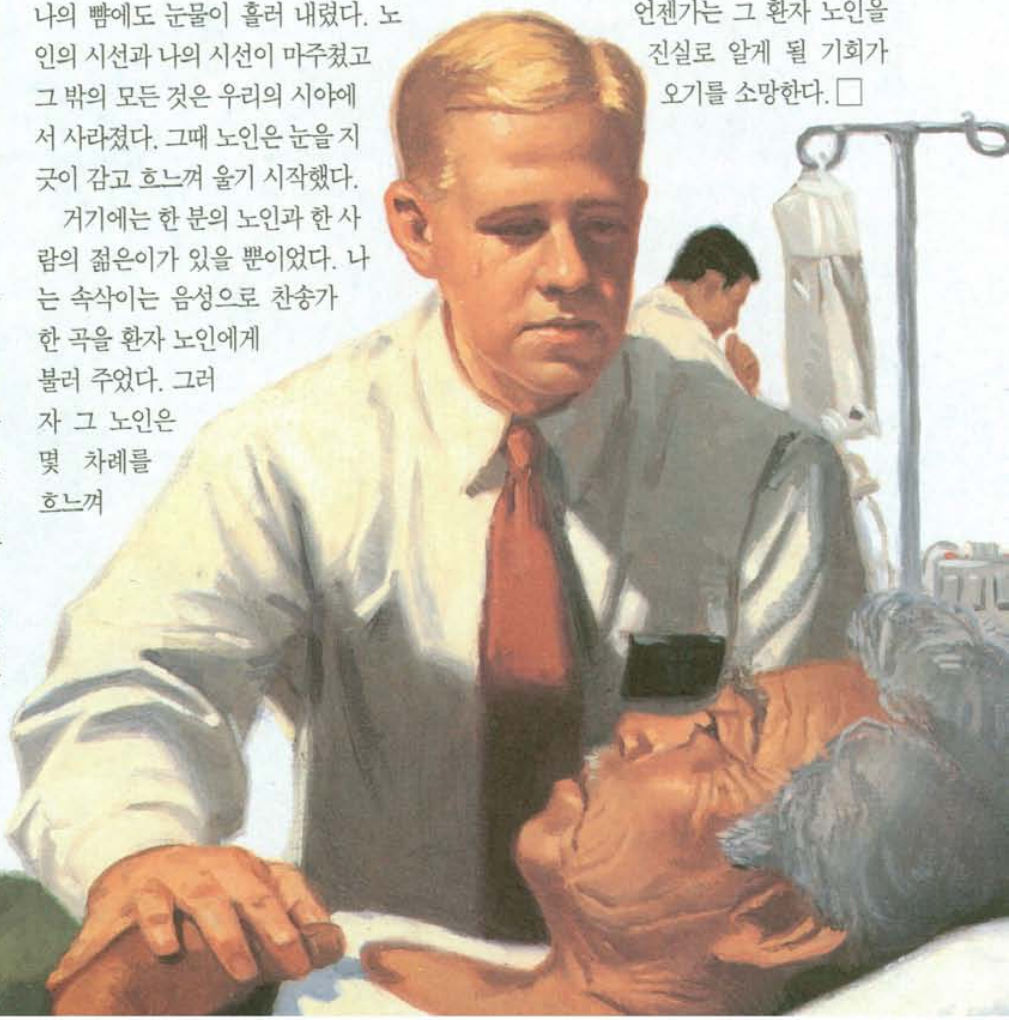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 환자 노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을 보니 고통스러움이 역력했다. 나는 방긋 웃는 모습을 보여 주려 했지만 이런 때 미소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의 침대에서 떨어져 서 있는 동안 나는 침대 가까이로 발걸음을 옮길 용기가 생겼다. 침대가에 가서 나는 노인의 손에 나의 손을 얹고 “할아버님, 어때세요?”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커다란 눈물 방울이 노인의 양 뺨에 흘러 내렸다. 나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 내렸다. 노인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때 노인은 눈을 지긋이 감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한 분의 노인과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속삭이는 음성으로 찬송가 한 곡을 환자 노인에게 불러 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몇 차례를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환자 노인은 자신은 곧 건강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 주기라도 하듯 나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었다.

어느덧 30분이 흘렀다. 동반자와 함께 자리를 떠나 할 시간이 되었다. 노인 환자에게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냥 허리를 구부려 노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아버님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 드려요!” 그러자 환자 노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환자 노인과 나는 헤어졌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서로를 볼 수 없는 작별이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환자 노인을 진실로 알게 될 기회가 오기를 소망한다. □



가정에서 대중 매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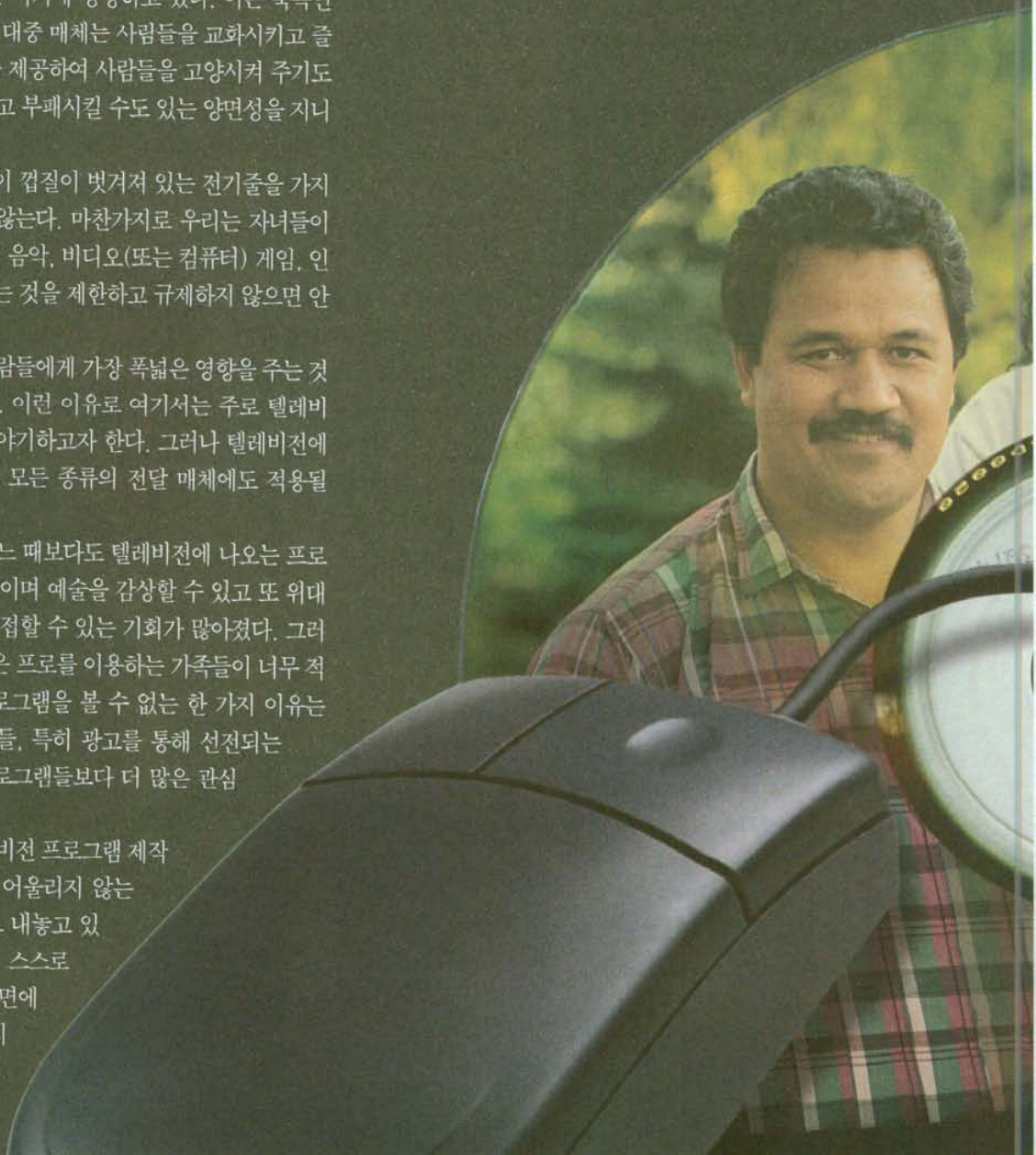
우리 자녀들은 지금 대중 매체가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성장하고 있다. 이는 축복인 반면에 문제점이기도 하다. 대중 매체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고양시켜 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껍질이 벗겨져 있는 전기줄을 가지고 노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영화, 음악, 비디오(또는 컴퓨터) 게임, 인터넷, 잡지, 신문 등을 접하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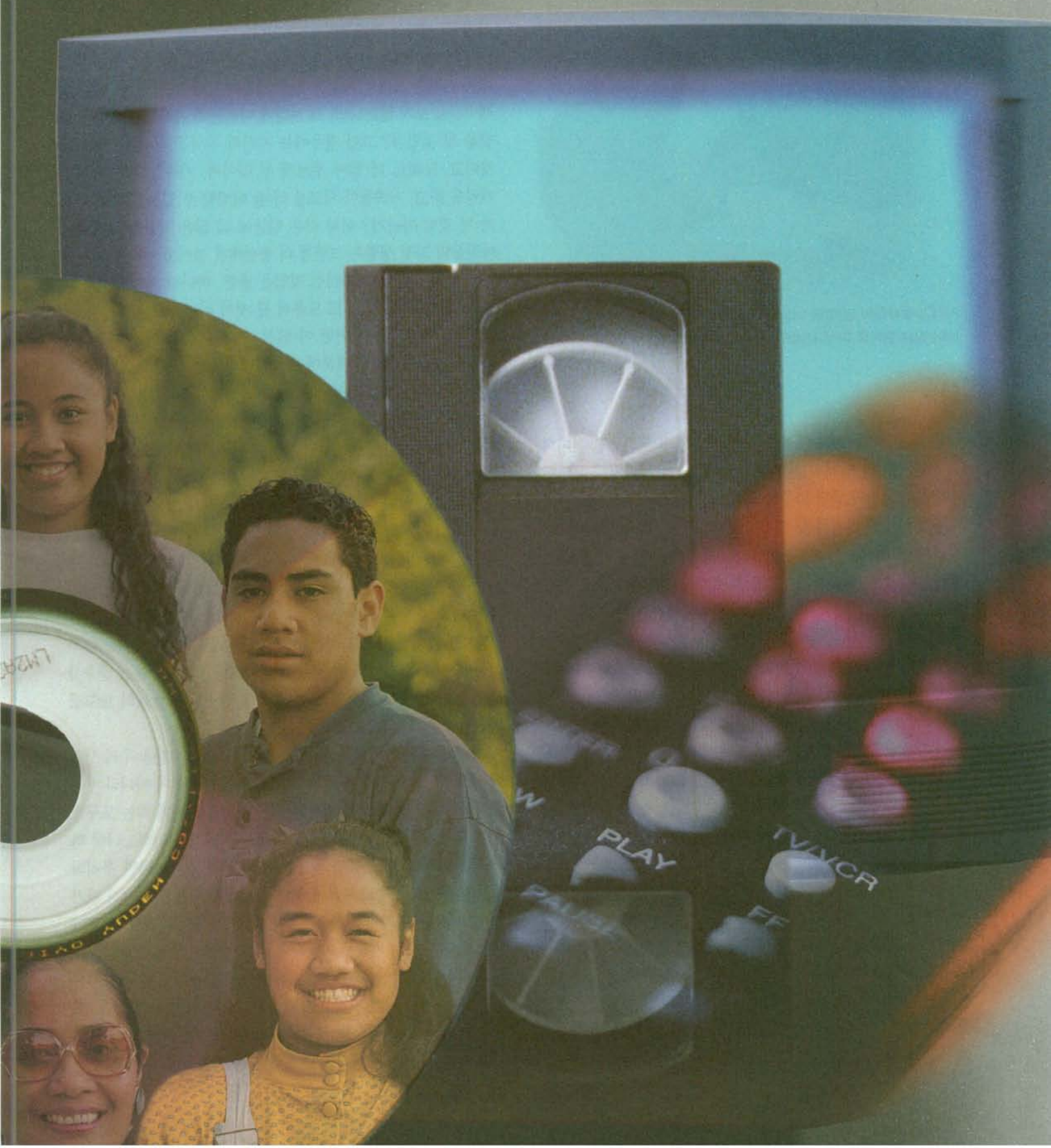
대중 매체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폭넓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 텔레비전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주로 텔레비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에 대해 설명된 사항들은 다른 모든 종류의 전달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음악이며 연극이며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와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들이 너무 적다. 사람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비교적 가치 없는 프로그램들, 특히 광고를 통해 선전되는 저급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우리의 높은 표준에 어울리지 않는 저급 프로그램들을 대량으로 내놓고 있어 여기에 텔레비전 시청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면에 나오는 폭력물이나 다른 좋지



영향을 통제함





지역 방송사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 줄 때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방송사를 격려할 수 있다.

않은 행동 장면으로부터 빠져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이제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성적인 장면 위주로 나아갈 필요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현대의 이지적인 작가의 한 사람인 웬델 베리는 텔레비전 코드를 "생명력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가정 밖으로 쏟아내는 진공 청소기의 배출관"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텔레비전과 기타 대중 매체들은 점차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다. ...이제는 생산을 하기 보다 소비하는 것이 더 낫고, 스스로 재배하거나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사들이는 편이 더 좋으며, 집에 있기 보다는 '외출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암시한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유아 시절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늘 압도적인 암시를 받아 왔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나 관심 밖의 일이 되어 가고 있고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암시를 받아 왔다."(선한 땅의 은사(1981), 156쪽)

텔레비전은 문화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힘 없고 불행한 역할로 묘사하여 가정 생활을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 그런 프로그램은 실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의 이면에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은 언제나 빠르고도 단순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며 그 해결책

은 단 하나의 반시간 짜리 또는 한 시간 짜리 에피소드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흔히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보다 가치있는 다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만일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노래도 더 많이 부르게 될 것이며, 가족들끼리 더 자주 게임을 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그만큼 더 충실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것임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욱 더 가까워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몇 해 전의 일인데 어떤 어머니는 자기 이웃의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때문에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안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을 권장하는, 이른바 "텔레비전을 끄고 마음을 켜자" 운동을 벌였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측에 학생들이 주중 뉴스나 교육 프로그램 두세 시간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 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일동은 기꺼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르쳐 주었고 학생들은 장기간 독서 경진 대회, 모델 만들기, 실험 등과 같은 특별 활동에 착수했다.

이 "텔레비전을 끄고 마음을 켜자" 운동은 특히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오래 기억될 만한 추억이 되었다. 현지의 뉴스 방송사들도 이 운동을 보도하였고 이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위에 설명된 어머니의 경우처럼 우리도 텔레비전을 우리 생활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의도적으로 우리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텔레비전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텔레비전이 쓸모 있는 중으로 부러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시간과 정신력을 소모시키는 우리의 지배자가 될 것이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 텔레비전 사용 관리 방법은 가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들 가운데는 아예 텔레비전 자체를 가정에 비치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주중 서너 시간으로 제한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규정한 규칙을 만드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선택 방안을 결정하는 일이다.

텔레비전 사용에 관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대중 매체의 영향에 관해서 설문 조사를 행할 수 있다. 다음은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질문 사항들이다.

1. 먼저 가족 개개인이 1주일 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목록으로 만든다. 여기에는 텔레비전, 비디오테이프, 영화, 음악, 컴퓨터, 라디오, 책, 잡지, 신문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대중 매체를 통한 각 활동에서 몇 시간이 소요되는가?

2. 매주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다. 텔레비전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양은 어린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른가?

3. 여러분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을 돕고 있는가? 또한 좀더 자란 자녀들도 돕는가?

4. 여러분은 부모로서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가?

5. 여러분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책, 잡지 및 기타 독서물은 무엇인가?

6. 텔레비전이 놓여진 장소는 어느 곳인가? 그것은 의자와 응접 의자로 둘러싸인 가구 중앙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텔레비전은 침실마다 비치되어 있는가? 텔레비전이 수면, 공부 또는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7. 식사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일은 얼마나 자주 있는가? 식사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일은 식사 시간 대화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8.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여러분은 언제나 그 프로그램이 전하는 메시지를 복음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해 주는가?

9. 여러분은 텔레비전이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만족하는 편인가?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가?

위와 같이 설문 조사를 한 후 여러분은 가족 회의를 열어 대중 매체에 관한 가족들의 요망에 관하여 토론을 벌이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만일 가족에서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그 변화 사항에 대해 다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미 결정된 훌륭한 선택에 대해 칭찬을 한다. 가령 텔레비전 시청이 지나치다는 것이 가족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은 가정에서 텔레비전 사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시청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 부모들은 다음의 제언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시킬 때에는 이들 제언을 수정할 수도 있다.

1. 가족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행동에 있어서 표준으로 삼을 어떤 가치를 결정한다. 그 표준은 부모의 경우나 자녀들의 경우나 같아야 한다.

2. 어떤 프로그램이 이 표준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끄기로 가족 전체가 합의한다.

3.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비전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감시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방송도 때로는 가족들이 합의한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특별히 우수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벽에 걸린 달력에 방영 예정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놓는다.

6. 안식일에 텔레비전을 볼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안식일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7. 텔레비전을 보기에 앞서 가정은 말끔히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들의 학교 숙제는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대중 매체의 사용은 좋은 나쁜 습관성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보다 가치 있는 다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가족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습관성은 끊을 수도 있다. 어떤 자매는 주부들을 위한 주간 연속 드라마를 보는 일에 깊이 빠져 있다가 자신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고 시간과 정신력을 소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중지하기로 결심했다. 그 자매는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고 후에 (자신의 기사에) 이렇게 썼다. "때때로 우리 가족은 다 함께 텔레비전을 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임의로 가치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본다. 취재 기자나 배우 또는 오락 진행자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을 때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적이면서 도덕적, 영적, 정서적으로 교양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리 파라,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을 어떻게 고쳤는가?", *엔사인*, 1977년 3월호, 19쪽)

부모와 자녀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 대중 매체들이 퍼붓는 부정적인 집중 포화로부터 빠져 나오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들이 대중 매체의 사용을 잘 관리하면 그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인 활동은 대중 매체를 통해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켜 줄 것이다. □

인터넷의 영향을 통제함

인터넷은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급원이다. 하지만 추행과 폭력과 부패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에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부모들은 인터넷이 가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의 하나는 부적절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일이다.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조치는 부모만이 아닌 패스워드로 인터넷 확인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일이다.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람 왕래가 많은 장소에 두고, 인터넷 사용을 다른 가족들이 깨어 있어 컴퓨터 화면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규제된다. 도서관이나 친구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인터넷을 스스로 다루는 방법을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인터넷 사용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준비된 교사를 구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교사

이며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는 바로 자신의 자녀들일 수 있다.

현명한 부모들은 온라인 활동을 하나의 가족 활동으로 삼아 컴퓨터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가족들이 채택할 수 있는 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모르는 사람들과 온라인 대화를 가질 때에는 은밀히 하지 말고 공공연하게 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실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온라인 대화 상대방에게 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부모의 승낙 없이 직접 또는 전화로 만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 비밀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경험한 불쾌한 일들은 즉시 부모에게 알린다.

물론 규칙은 확실하고도 공정하게 지켜질 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규칙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부모 자신이 흠 없는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자녀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 줄 때, 그때에 부모는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요셉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모로나이

“나는... 매년 그 날 [구모라 언덕]에 가서 바로 그 천사를 만났으며 만나 설명할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주의 왕국이 말일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하여 가르침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54)



나의 부친이 아침에 일어나시어... 신묘한 솜씨로 만들어진 둥근 공이 땅에 있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시니, 이는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진 공이라. 공 안에는 지침 두 개가 있어, 그중 하나가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더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 배를 만들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물 건너로 인도하리라. ... 여러 날을 항해한 후에 우리 일행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나니”(니파이일서 16:10; 17:8; 18:23)

